

## 18·19세기 제주사회와 김만덕 생애 재고찰

\*김나영

1. 머리말
2. 18·19세기 제주사회
  - 1) 제주민의 해상활동 양상
  - 2) 제주도의 기근과 진휼 실태
3. 김만덕 생애 재고찰
  - 1) 김만덕의 신분과 면천여부
  - 2) 김만덕의 재산축적 방법
  - 3) 김만덕의 진휼 실태
4. 맺음말

\*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학예연구사

### [국문요약]

본고는 18~19세기 제주도 출신의 대표적 名人인 김만덕[1739년(영조15)~1812년(순조12)]의 생애를 당시 그녀가 살았던 제주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거시적이고 유기적인 연결고리 속에서 재고찰하였다. 김만덕이 살았던 18~19세기는 조선사회의 다방면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였다. 특히 어느 부문보다도 경제적인 면에서 확연한 발전양상을 띄었다. 이양법의 본격적인 보급, 즉 농법 개량을 통한 농업 생산력 향상과 대동법의 실시, 화폐 사용을 통한 상품 유통경제의 활성화에서 비롯된 경제적 발전으로 인구 증가 및 신분제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조선사회의 변화무쌍한 경제적 변화는 제주사회가 처한 열악한 자연지리적 조건에 부딪혀 그대로 전달·흡수되지 못하였다. 조선후기 접어들어서도 제주도는 각종 기상재해와 기근으로 말미암아 식량부족 및 민심동요 등 갖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한편 조선후기 제주도에 들어닥친 3번의 연속적 대기근으로 제주사회는 더욱더 피폐해져 갔다.

김만덕이 왕성히 활동하던 시기는 3대 대기근 중 '임을대기근[1792년(정조16)~1795년(정조19)]'에 마주한 시기였다. 그녀는 변방의 섬인 제주도에 태어나 기녀(천민)이라는 신분적 굴레와 여성이라는 차별을 극복하고, 18세기 당시 명망 높은 기녀로서 제주도내 관리 및 지방의 유력 토호세력, 부호들을 비롯해 제주도를 왕래하는 육지 상인들을 상대로 한 妓房 혹은 舖를 기반으로 매점매석 등의 운영방식을 통해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최악의 흉년을 맞은 1795년(정조19), 자신의 모은 재산을 기부하여 수많은 제주민들을 救命하였다. 이러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김만덕은 그녀를 둘러싼 각종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한양으로의 상경, 왕(정조)과 왕비의 알현, 醫女班首의 직책 획득, 금강산 유람 등의 전례 없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당대 지식인들이었던 정치인, 학자, 문인들의 관심을 한몸 받으며 많은 칭송의 글과 시, 편액 등이 집필되어졌다. 김만덕의 의로운 선행은 현재까지도 못사람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단지 한 제주여성에 대한 전기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 그녀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 제시의 표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 김만덕이란 인물을 선양화하는 과정에서 당대 역사적 문헌 사료에서와 다르게 그녀의 신분과 면천여부, 재산축적의 방법, 경제활동의 기반터, 진흥의 규모 등 생애 전반에 있어 상이하게 기록되어지고, 이것이 통설로 받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김만덕에 대한 의구심을 역사적 문헌 사료에 근거해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보고자 우선, 18~19세기 제주사회의 전반에 대한 시대적 상황 등을 고찰하였다. 이후 그녀에 관한 여러 후대 전록 기사들의 비교·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김만덕의 생애에 대한 오류 및 상이점 등을 찾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였다. 이 같은 작업은 기존의 통설을 부정한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김만덕이란 인물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그녀에 대한 맹목적 미화와 왜곡이 아닌, 올바른 선양사업을 이끄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 1. 머리말

18세기 조선사회는 임진왜란 및 정묘호란·병자호란이라는 未曾有의 戰禍를 겪고서도 재건되었던 조선중기의 사회체제가 여러 측면에 있어 동요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이다. 우선, 정치적으로 근본주의적 성리학 이념의 틀에서 公論과 朋黨을 토대로 한 사림 정치가 정국에서 후퇴함과 동시에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체제가 균열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농법의 개량을 통한 농업 생산력 향상과 대동법 실시, 화폐 사용을 통한 상품유통경제의 활성화에서 비롯된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구의 증가 및 신분제의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반면 이러한 조선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제주도는 四面大海風災와 山高深谷水災 및 石多薄土旱災 등 소위 三災로 말미암아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시키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주의 특산물 및 수공업 제품 등을 가지고 바다로 나아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쌀·배·소금 등과 교역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 가운데 제주도에겐 비록 場市가 개설되지 않았지만, 사면으로 둘러싼 제주도 연안의 포구들을 중심으로 제주의 산간지대와 해안지대의 물자교환뿐 아니라, 육지에서 반입되는 상품의 교역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에 17세기 말~19세기 전반에 걸친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해상활동은 전라도 남해안 일대의 포구뿐만 아니라, 경상도·충청도·서울 경기도를 아우르는 제주-육지 간 광역의 상품유통로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당시 기상재해 발생에 따른 기근과 더불어 중앙집권 하에서 이뤄진 과중한 공물·진상의 수취체제 및 부역의 폐단 등의 가혹한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제주민으로 하여금 도외로 출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 인구수는 반으로 줄어든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어 갔으며, 이에 조선정부는 인조 7년(1629) 그들의 출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出陸禁止令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조선후기 제주도는 3번의 대기근을 겪는데, 그 첫 번째가 현종 11년~12년(1670~1671)에 일어난 ‘경신대기근’이며, 두 번째가

숙종 39년~43년(1713~1717)의 5년에 걸쳐 일어난 ‘계정대기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정조 16년~19년(1792~1795)에 발생한 ‘임을대기근’이다. 특히 18세기 연이은 계정대기근과 임을대기근으로 인해 제주사회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의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때 김만덕[1739년(영조15)~1812년(순조12, 74세)]은 조선후기 당시 변방의 섬인 제주도에서 태어나 기녀(천민)이라는 신분적 굴레와 여성이라는 차별을 극복하고, 재산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흉년을 맞은 1795년(정조 19)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수많은 제주민들을 救命한 인물이다. 이러한 그녀의 선행은 중앙조정에까지 알려져 출륙금지령 하에서도 제주 여성으로서 왕과 왕비를 알현했음은 물론 醫女班首라는 직책을 수여받았고, 금강산 유람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당대 지식인들이었던 정치인, 학자, 문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많은 칭송의 글과 시, 편액 등이 집필 되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녀의 신분과 면천여부, 재산축적의 방법, 경제 활동의 기반터, 진흥의 규모 등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실정이다.

요컨대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김만덕에 대한 의구심을 역사적 문헌 사료에 근거해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보고자 우선, 18~19세기 제주사회의 전반에 대한 시대적 상황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후 여러 사료들에 기재된 김만덕의 생애를 당시 시대상황과 연결시켜 재조명함과 동시에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밝혀지는 그녀의 또 다른 행적이 김만덕이란 인물의 맹목적인 미화가 아닌, 올바른 선양사업의 길로 인도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 2. 18·19세기 제주사회

### 1) 제주민의 해상활동 양상

四海孤島이자 火山島, 山高原野, 風多島라는 제주도의 독특한 지리적 입지

조건에 기인한 척박한 자연환경은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인 衣食住,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衣食을 마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삶의 조건 형성에 너무나도 미약하였다. 地表 대부분이 자갈과 모래로 덮여 있어 米穀 생산은 매우 힘들었으며, 木棉과 麻布가 생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생계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주민들은 바다를 매개로 얻은 미역[甘藷]·전복 등 각종 해산물과 양태·표고·사슴가죽[鹿皮]·말총[馬鬃]·가죽신[皮鞋] 등의 토산물을 가지고 육지에 나아가 米·布·소금[鹽] 등과 교역하였다.

이처럼 자연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한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농업이 아닌 수산업,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진 水産物과 土産物의 교역 및 운송 등으로 전환되어졌으며, 제주민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처한 자연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산업구조 체제는 반드시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야 하였기에 항해 중 漂流리는 일종의 해난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17세기 이후 조선사회는 상업인구의 증가, 금속화폐의 전국적 유통, 장시의 발달 등으로 말미암은 상품화폐경제가 눈부신 변화와 성장을 맞이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적 상황은 이와 달랐다. 이원조 제주목사의 『탐라지초본』(1845)에 의하면, “고을(제주)에는 場市가 없고, 재화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포목만 사용하므로 매매가 매우 어렵다”<sup>1)</sup>고 적고 있다.

이렇듯 장시가 존재하지 않고,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던 18~19세기 제주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상품유통 및 교역을 행했을까? 이를 위해 조선후기 제주민들의 해상활동 양상을 異國으로 표류하였다 생환되어 온 漂還人들의 문정내용을 담은 『표인영래등록』<sup>2)</sup>의 기록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표 1>은 해당 사료의 기록 중 일부로, 17세기 말~18세기 중반 제주도 진상선이 일본

1) 李源祚, 『耽羅誌草本』 土俗條.

2) 『漂人領來勝錄』은 예조의 典客司에서 편찬한 것으로, 일본에 표류·표착한 조선인들의 송환기록이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사료는 총 20책 중 제17책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 1734~1736년까지 약 3년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1641년(인조 19) 9월~1751년(영조 27) 9월까지 약 110년 동안의 표류기록을 담고 있는 朝·日 표류에 관한 가장 일차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정성일, 『漂流記錄을 통해서 본 朝鮮後期 漁民과 商人의 海上活動』, 『국사관논총』 제99집, 국사편찬위원회, 2002, 5쪽).

등지로 표류하여 동래부로 송환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들 선박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표류 선박 내에 승선하고 있던 승선자의 신분과 인원수, 이들의 당초 승선목적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당시 진상물 수송 실태와 함께 제주도-육지본토와의 해상교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표 1>의 순번 1~8번 중 4, 5번을 제외하고는 제주에서 본토로 향하던 중 표류된 경우이며, 4, 5번은 진상을 마치고 본토에서 제주도로의 귀로 도중 표류된 경우이다. 승선자의 구성원 가운데 沙格이라 불리는 沙工과 格軍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사공은 배의 船長으로서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들의 직역은 대부분이 寺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격군은 노를 젓고 돛을 올리는 등 배의 운항을 담당하였는데, 배의 크기에 따라 그 편성이 달랐지만, 해당 표에서 보면 한 배에 많게는 약 60명에서 적게는 10여명 내외가 승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외 진상선의 승선자 내역을 살펴보면, 진상물 봉진을 담당하는 押領官들이 존재하였는데, 그 명칭은 方物上納色吏, 進上押領使, 進上色吏, 押領色吏, 進上物件監色, 進上陪持色吏, 進上押領, 領使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sup>3)</sup>

한편, 이 배에는 진상 이외의 다양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승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번 1과 2를 보면, 진상 관련 관리 외에 서울 및 장흥 商賈[상인]들도 함께 승선하고 있다. 이들은 私商으로서, 제주도에 장사를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일을 마치고 진상선과 함께 出船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 특히나 2번에서는 제주의 구황용 곡식구매를 위해 救荒貿易色吏 6명과 함께 이를 구입하기 위한 本錢으로 제주의 특산물인 甘藷[미역], 涼臺, 전복 등을 적재하고 있는 등 공무의 목적 또한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된다.

3) 나가모리 미쯔노부(長森美信), 『조선 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제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155쪽.

〈표 1〉 『표인영래등록』에 기록된 표류 선박[진상선 중심]의 승선자 및 출항목적 양상<sup>4)</sup>

순번	사공 지역·성명	격군 인원수	출항일 표착일	진상 관련 관리 및 인원수	총 인원수	출항목적
				기타 승선자 및 인원수		
1	寺奴 金以斤	39명	1698.11.29 1698.12.7	濟州冬至方物上納色吏 1명, 濟州11月朔所封柑子初運二三進上色吏 3명, 濟州判官進上柑子押領色吏 1명, 大靜縣監進上柑子色吏 1명 8邑 陸居奴婢收貢色吏 2명, 남원 거주 濟州牧使 帶率軍官 1명, 서울 거주 상인 3명	54명 (病2명, 生52명)	진상+공무 (구황용 곡물구매) +상매
2	寺奴 李守日	33명	1699.11.1 1699.11.11	濟州進上柑子押領使 3명 濟州救荒貿易色吏 6명, 서울 거주 상인 1명, 장흥 상인 1명	44명	진상+공무 (구황용 곡식구매) +상매
3	寺奴 尙俊	20명	1704.1.9 1704.1.27	濟州唐袖子進上及祭物使 13명 영암 거주 幼學과 그 노비 등 3명	39명 (死1명, 失1명, 生37명)	진상+공무 (물품구매) +私務(추노)
4	寺奴 李仁奉	22명	1704.12.12 1704.12.19	濟州牧使 및 判官大靜旌義進上色吏 13명 濟州牧使帶來軍官 1명	37명	진상+공무 (물품구매)
5	寺奴 金以云	24명	1707.12.12 1707.12.22	濟州進上物件監色·馬夫 7명[상경합] 歸路에서 대정현감의 노비 2명	28명 (溺3명, 病2명, 生23명)	진상+상매 (곡미구매) +운송
6	寺奴 高戒輝	9명	1720.11.14 1720.11.18	濟州牧色吏·監色 3명	15명 (病1명, 生14명)	진상+공무 (이전곡의 代納)
7	寺奴 康次萬	9명	1723.4.7 1723.4.9	濟州進上柑子押領使 2명 濟州藥材質來使 1명, 濟州 거주 상인 2명, 濟州譯學과 從人 3명, 서울 마포 거주 幼學 1명, 황해도 거주 幼學과 그 노비 등 3명, 서울 거주 濟州檢律 奴子 1명, 나주 거주 私商 1명, 충청도 대흥 거주 濟州牧使帶率軍官 奴子 1명	25명	진상+공무 (약재구입) +상매 +私務(추노)

4) 〈표 1〉의 출처 : 순번 1) 『漂人領來臚錄』 6책, 己卯(1699) 6월 초3일조; 순번 2) 同書 7책, 庚辰(1700) 7월 21일조; 순번 3) 同書 9책, 甲申(1704) 7월 초3일조; 순번 4) 同書 9책, 乙酉(1705) 윤4월 14일조; 순번 5) 同書 9책, 戊子(1708) 4월 초7일조; 순번 6) 同書 13책, 辛丑(1721) 5월 17일조; 순번 7) 同書 13책, 癸卯(1723) 10월 11일조; 순번 8) 同書 14책, 甲辰(1724) 4월 19일조.

순번	사공 지역·성명	격군 인원수	출항일 표착일	진상 관련 관리 및 인원수	총 인원수	출항목적
				기타 승선자 및 인원수		
8	寺奴 李春建	21명	1724.2.14 1724.2.17	濟州正朝方物筒箇, 結弓獐皮進上陪特色吏 1명, 濟州二月令青橘追引鬮進上陪特色吏 1명, 濟州 正朝陳賀箋文陪特色吏 1명, 三件進上陪 從人 4명 濟州軍器火藥貿易使 1명, 서울 거주 禁府書吏 2명, 濟州定配罪人의 子와 奴 등 2명, 全義 거주 幼學과 그 노비 등 2명, 서울 거주 閑良 1명, 강진 거주 禁府書吏 1명, 제주 거주 私商 12명, 서울 거주 私商 2명, 임피 거주 私 商 1명, 영암 거주 私商 1명, 서천 거주 제주 관관 奴子 1명, 부여 거주 私奴 1명	60명	진상+공무 (화약구입) (유배인관리) +상대 +私務(추노)

※ 자료 : 나가모리 미즈노부(長森美信), 『조선 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제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3, 153쪽, <표 4> 진상선의 乘船者 내역을 재편집함.

주) 출항일·표착일과 총 인원수는 김나영, 『조선시대 濟州島 漂流·漂到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부록 1-5. 17-19세기 일본 표류 제주인 연표]를 토대로 작성함. 이때 선행연구와 본 논문의 통계 가운데 총 인원수에서 상이함을 보이는 것이 순번 2·5·6·8번임.

순번 3의 배에는 진상에 관한 상납물 이외에 厩馬所 및 禮房所에 바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本錢으로 미역, 軍木, 전복, 木梳, 帽子, 涼臺 등을 싣고 있다. 그리고 순번 4의 배에도 厩馬所의 각종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미역, 전복 등이 船載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 이로부터 또 다른 공무 목적의 물품 구매를 위해 진상선과 함께 출항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그리고 순번 7과 8을 보면 진상선 내에는 濟州藥材買來使와 濟州軍器火藥貿易使가 각 1명씩 동승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목적을 달리한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관리들이 승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순번 8번을 보면 서울 거주 全義禁府 書吏 2명이 공무의 목적으로 출항하고 있는데, 이때 濟州定配罪人의 아들과 奴 2명도 함께 승선하고 있다.

이때 정배죄인은 1722년(경종 2) 壬寅誣獄[임인옥사]으로 제주 정의현에 유배되어 온 (統制使) 李壽民으로, 의금부 서리 1명은 그를 拿來하기 위해 전년 10월에 와 있었지만, 또 다른 서리가 그의 유배를 續行함을 전해왔기 때문에 이들은 해당 공무를 마치고 서울로 회귀하던 것이었다. 또한 이수민의 아들 槩도 그의 아버지를 따라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위의 서리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동승한 것이다. 또한 순번 7과 8의 배에는 순번 2의 사례[서울 및 장흥 商賈]처럼 나주·제주·서울·임피·영암 등지의 私商들이 동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거래 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교역 활동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세기 초,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고을의 私商들이 제주도를 오고 가며 활발한 해상교역을 실시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순번 3, 7, 8을 차례로 보면, 제주에 거주하는 자신의 노비에게 收貢하기 위해 전라도 靈巖의 유학[3번]과 황해도 安岳의 유학[7번], 충청도 全義의 유학[8번]이 그들의 奴를 데리고 제주도에 왔다가 收貢 후 진상선을 타고 돌아가는 경우도 확인된다.

순번 5는 10월령 유자와 체임진상인 말 2필을 실어 제주도를 출발, 도회관 해남에 도착한 후 진상 관련 관리 및 마부 7명은 육로를 통해 상경하고, 나머지 19명은 부안 沙津浦에 가서 신고 간 미역과 마필을 正租 300석과 맞바꾼 후, 陸居奴婢의 收貢米 15석 또한 배에 싣고 있다. 이후 서울에서 진상을 마치고 돌아온 監色과 함께 해남으로 돌아가 대정현감 노비 2명(남매)을 동승하여 돌아오다 표류를 당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진상물 수송업무 외적으로 미역·마필과 곡물 등의 교역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부차적인 운송 업무도 함께 행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때 교역의 목적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公私교역을 구분 지을 순 없으나, 사공 혹은 격군에 의한 私交易일 가능성이 높으며, 진상물 수송에 수반된 공사교역이 제주와 육지의 상품유통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겠다.<sup>5)</sup>

순번 6을 보면 해당 선박에는 色吏 및 監色 등 진상용 감자 및 청굴을 상납하기 위해 승선하고 있음은 물론, 나주 濟民倉에서 보내 준 이전곡의 代納用으로 미역·涼臺 등이 물품 등도 적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주의 흥년시 타지역의 이전곡을 통한 진흥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생선·미역 등의 해산물 또는 수공업품인 涼臺 등으로 대체

5) 나가모리 미쯔노부(長森美信), 앞의 논문 158-159쪽.

되어 납부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제주도 해역을 주축으로 바다를 오고 갔던 선박 내에는 하나의 단일 목적이 아닌 다양한 목적을 지닌 여러 계층이 함께 승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 진상선의 목적을 띤 선박 내에는 또 다른 공무, 즉 구황용 곡식구매 및 이전곡 대납, 官府 필요한 公共物품 구입, 유배인 관리업무 등을 위해 관련 관리들이 동승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비롯한 타지역의 私商들이 상매를 목적으로 승선하고 있음은 물론, 육지거주 양반이 증을 거느리고 제주에 사는 자신의 노비에게 收貢하기 위해 해당 배에 오른 경우 등 개인적인 私務를 위해 同船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주의 구황용 곡물구입 및 이전곡 대납, 官府 필요한 公共物품(약재 및 화약 등) 입수 등 公務 목적의 교역을 위한 本錢으로써 미역·전복 등의 수산물을 비롯한 말과 녹피 등과 함께 帽子, 涼臺 등을 적재하여 출항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17세기 말~18세기 중반 시기에 있어 제주도의 公務易의 형태는 제주도의 특산물 및 수공업 제품을 그 本錢으로 삼아 육지의 買收할 물품과 물물교환 형식으로 교역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세 번째로 제주도의 미역, 전복 등의 魚物을 매개로 주로 입수된 물품은 곡물이며, 구황용 곡물구매 등의 公交易이 아닌 개인 목적의 곡물 구입인 경우도 역시, 제주도의 특산품인 미역·전복·涼臺 등을 그 本錢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렇듯 제주민들에게 있어 상매의 주된 물품이 곡물인 이유는, 제주의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말미암아 그 미곡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그 부족분을 제주도의 특산물과의 교환형태를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아래 A-1)에 보이는 『남사록』 권4 정월 27일자에 김상헌이 제주 안무어사의 업무를 마치고 歸京하는 배 안에서

6) 張漢喆, 『漂海錄』, (1771년) 정월 15일조, 「사공 李昌成이 말하기를 “...(생략)... 곧 갯가로 나아가 이들을 보니 **과연 제주사람 金仲澤, 李鳳來, 金福成 세 사람이었는데, 장사 일로 육지로 나왔다가 다 풀린 뒤 장차 돌아가려고 여기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략)... **또 제주 아전 金昌賢이 찾아왔는데, 그는 관청의 사무로 장차 서울로 간다고 하였다.”**

[제주사람] 領將 文繼明의 답변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 경제적 구조 양상은 19세기에 접어든 당시의 현실에서도 큰 변동이 없었음을 A-2) 『濟州牧關報牒』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

A-1) 제주사람들은 불행히도 섬 중에 태어나서 衣食이 모두 어려우므로 반드시 육지에서 얻어다가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빈천한 백성들은 다만 糞綜皮物을 가지고 연해 여러 고을에 가서 팔아 힘든 삶을 연명합니다. 또 州官을 迎送하고, 進上으로 왕래하는 때가 아니면 또한 임의로 육지에 나갈 수 없으므로 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官人의 행차 모시기를 영광이고 행운으로 여깁니다.<sup>7)</sup>

A-2) 본도는 바다 가운데에 가득 차 사이가 동떨어져 연락이 안됩니다. 바다에서의 회오리바람의 신기루를 일으키는 안개로 풍년은 적고 흉년이 많아서 늘 걱정입니다. 토지는 척박하니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마다 바다를 피하여 육지로 가고자 했습니다. 조를 뿌리고 보리를 파종하여 곡식과 현금의 귀한 것을 바꾸니 涼太를 맺고 미역을 캐어 물가가 비싼 都會에서 사는 근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후략)…<sup>8)</sup>

네 번째로 <표 1>의 순번 2, 7, 8을 보면 제주에서 육지로 출항하는 배에는 장흥·나주·임피·영암 등 전라도 등지의 私商뿐만 아니라 서울의 商賈까지도 승선하고 있으며, 제주에서 신고 간 미역·마뽀 등을 전라도 부안(홍덕현)의 沙津浦에 가서 곡물과 교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렇듯 17세기 말~19세기 전반에 걸친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해상활동은 제주도에 내려진 출륙금지령이 19세기에 이르러 점차 해이해지면서 제주-육지 간 상인들의 왕래는 빈번해졌고, 전라도 남해안 및 충청도 서해안의 포구뿐만이 아니라,

7) 金尙憲, 『南槎錄』 권4, 정월 27일 경신조.

8) 『濟州牧關報牒』(奎 15125 소장) 현종 14년(1848) 5월 초1일 未時, 「本島磅礴海中 隔絶化外 颶風蜃霧 常患小穰而多饑 瘠土貧民 每懷避海而就陸 播粟種牟 易見穀金之貴 結涼採藿 難救桂玉之愁」.

서울 경기도를 아우르는 광역의 상품유통로<sup>9)</sup>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비록 19세기 중반까지 제주도에는 場市가 개설되지 않았지만, 사면으로 둘러싼 제주도 연안의 포구들을 중심으로 제주의 산간지대와 해안 지대의 물자교환뿐 아니라, 육지에서 반입되는 상품의 교역이 이뤄졌음을 살필 수 있다. 이것은 별도의 장시를 개설하는 것보다 포구에서 교역하는 것이 제주 내부의 수요자, 판매자뿐 아니라 외지의 상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었다.<sup>10)</sup> 반면,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해상교통의 진보는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상업활동의 활성화를 촉진시켰지만, 한편으로는 표류라는 해난사고의 증대를 초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2) 제주도의 기근과 진휼 실태

조선사회에서 있어 농업은 조선을 떠받치는 경제의 근간으로, 자연재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곧 凶荒과 饑饉으로 연결되어 농민의 토지 이탈과 기아자의 발생 등 조선 통치기반을 동요시켰다. 이들은 조선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재정 수입원의 주 대상이었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리학에 입각한 王道的 民本主義를 근본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왕조에 있어 궁핍한 백성들의 賑恤에 힘쓰는 것은 국왕의 당연한 책무로 여겼다. 이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饑民을 구제하는 愛民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진휼정책을 실시하였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섬을 둘러싼 제반의 자연지리적 여건상 악천후

9)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生利, 「경상도는 김해 七星浦가 낙동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목이 된다. …(중략)… 전라도는 나주의 영산강과 영광의 法聖浦, 홍덕의 沙津浦, 전주의 沙灘이 비록 짧은 강이나, 모두 조수가 통하므로 장삿배가 모인다. 충청도는 금강 하나로, 부여·은진에서 비로소 바다 조수와 통하여 白馬江 이하 鎭江 일대는 모두 배편이 통한다. 그런데 은진 강경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육지와 바다사이에 위치하여 금강 남쪽 들 가운데 하나의 큰 도회가 되었다. 바닷가 사람과 산골 사람이 모두 여기에서 물건을 내어 교역한다.」

10) 이육, 「18~19세기 중반 濟州地域 商品貨幣經濟 발전과 성격」, 『국학연구』 제12집, 한국국학진흥원, 2008, 525쪽.

또는 기상재해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아 매년 흉년과 기근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와 함께 설상가상으로 천연두나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은 민심을 離叛시켜 제주사회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제주도 내에서의 자연재해는 얼마나 발생되었을까?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해당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제주도에 발생한 자연재해의 유형별 특성을 시기별로 수량화한 결과, 제주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총 107건은 전반적으로 조선전기보다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자주 발생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특히 17세기(46건, 43%)<sup>11)</sup>에 집중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18세기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조선시대 시기별 제주도 자연재해 및 진흩 현황(단위 : 건)

구분 \ 시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합계
풍해(風害)	6	5	19	12	2	44
수해(水害)	3	5	13	5	4	30
한해(旱害)	2	4	8	6	3	23
동해(凍害)	2	0	6	0	2	10
<b>합계</b>	13	14	46	23	11	107
<b>진흩건수</b>	8	10	23	56	25	122

\* 자료 : 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이상기후와 문화』, 푸른길, 61쪽, <표 2-7. 이상기후 기록 현황> 및 221쪽 <표 4-1. 구휼 상황>을 재편집함.

\* 출처 :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증보문헌비고』, 『탐라기년』

하지만 조선시대 제주도의 자연재해는 어느 시기보다도 17세기에 異常氣象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주도에 행해진

11) 17세기는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추웠던 시기로, 극심한 추위와 旱魃, 불규칙한 이상기후가 원인이 되어 水災, 旱災, 蟲災 등 재해가 빈번했다. …(중략)… 전 세계적으로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까지 이상기후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세기가 돼서야 다시 급감하였는데, 이를 ‘소빙기’라고 한다(조지형, 『17세기, 소빙기, 그리고 역사추동력으로서의 인간-거대사적 재검토-』, 『이화사학연구』 제43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11, 20쪽).

진홀 건수는 18세기(56건, 45.9%) → 19세기(25건, 20.5%) → 17세기(23건, 18.9%) 순으로 확인된다. 이는 18세기 제주도에 발생된 기근이 17세기에 비해 오랜 기간 걸쳐 집중되고 대형화되는 경향을 나타냄에 따라 진홀 횟수 또한 증가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또한 18세기 조선의 왕이었던 숙종·영조·정조의 제주도 및 제주백성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기인한 결과라 여겨진다.

또한 풍해, 수해, 한해, 동해 등 4개 분야로 분류된 자연재해 가운데 투홍 발생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육지부와 달리, 제주도는 風害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强風多風의 지역이자,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부터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거쳐 가는 길목에 위치한 탓에 기인한다. 아울러 태풍은 집중호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水害의 발생 또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 타지역에 비해 유독 빈번하게 발생했던 제주도의 자연재해는 식량 재생산의 기반을 상실케 하는 흉황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식량공급의 부족은 기근을 초래하여 국가재정의 궁핍 및 제주민들에게 있어 생존의 위협을 가하였다.

특히 조선 500여년 동안 제주도는 3번의 대기근을 맞는데, 그 첫 번째가 현종 11년~12년(1670~1671)에 일어난 ‘경신대기근’이며, 두 번째가 숙종 39년~43년(1713~1717)의 5년에 걸쳐 일어난 ‘계정대기근’<sup>12)</sup>,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정조 16년~19년(1792~1795)에 발생한 ‘임을대기근’을 들 수 있다.<sup>13)</sup> 요컨대 소위 小氷期라 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다수 발생하였던 17세기의 경신대기근을 비롯, 18세기 계정대기근과 임을대기근으로 인해 제주사회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의 양상을 보인다. 이 3대 기근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참혹했는가는 그 당시 제주목사가 조정에 보고한 馳啓 및

12) 조선은 500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기근을 두 차례나 겪었다. 현종 때 경신대기근(1670~1671)과 숙종 때 을병대기근(1695~1696)이다. 그러나 을병대기근 때 제주도의 기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별로 없다. …(중략)… 을병대기근 기간에 제주도에서도 기근이 발생했지만, 그 정도가 육지에 비해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를 보면 제주도는 을병대기근 때보다 숙종 39~43년(1713~1717)까지 5년 동안 연달아 발생한 계정대기근 때가 더 심각했다(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이상기후와 문화』, 푸른길, 2018, 243~244쪽).

13) 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이상기후와 문화』, 푸른길, 2018, 231쪽.

어사의 狀啓, 왕의 하교 내용에서 이를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B-1) (경신대기근 / 현종 12년, 1671) 제주목사 盧錠<sup>14)</sup>이 치계하였다. “本島에 굶주려 죽은 백성의 수가 무려 2천 2백 60여 인이나 되고 남은 자도 이미 귀신꼴이 되었습니다. 닭과 개를 거의 다 잡아 먹었기에 경내에 닭과 개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어서 마소를 잡아 경각에 달린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사람끼리 잡아 먹는 변이 조석에 닳았습니다.”<sup>15)</sup>

B-2) (경신대기근 / 현종 12년, 1671) 副校理 李夏를 제주로 보내어 선유하게 하였다. 조정에서 제주 세 고을이 가장 심하게 기근이 들어 백성이 많이 죽었으므로 위로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李夏를 宣諭御使로 삼아 가서 선유하게 하였다.<sup>16)</sup>

B-3) (계정대기근 / 숙종 39년, 1713) 제주·대정·정의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바다와 산을 뒤흔들어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인가가 2천여 호나 되도록 많고 사람이 또한 많이 압사하고, 우마 4백여 필이 죽었다. (왕이) 명하기를, “압사한 사람에게는 恤典을 거행하도록 하라. 한 섬에서 입은 재해가 이처럼 혹심하니, 목사가 巡審하여 狀聞하기를 기다려 즉시 곡식을 옮겨서 구제해 살릴 터전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sup>17)</sup>

B-4) (계정대기근 / 숙종 40년, 1714) …(생략)… 제주에는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모두 소와 말을 잡아 먹었으며, 가뭄이 심하여 소와 말이 목이 타서 죽었다.<sup>18)</sup>

14) 1671년(현종 12) 당시 濟州宣諭御使로 파견된 李夏는 당시 제주목사 盧錠이 제주의 대기근 상황 속에서 제주백성을 잘 救恤하고, 賑濟에 공이 큼을 書啓로 올려 轉ら병마절도사로 영전되고, 1672년(현종 13) 2월에 가선대부로 加資되었다(『현종실록』 권20, 현종 12년(1671) 12월 24일 신축조).

15) 『顯宗實錄』 권19, 현종 12년(1671) 4월 3일 갑신조.

16) 『顯宗實錄』 권19, 현종 12년(1671) 9월 16일 갑자조.

17) 『肅宗實錄』 권54, 숙종 39년(1713) 9월 8일 임자조.

18) 『肅宗實錄』 권55, 숙종 40년(1714) 7월 21일 경신조.

B-5) (계정대기근 / 숙종 42년, 1716) 굶어 죽은 제주의 백성에게 賜祭하였다.

(濟州別遣御史) 黃龜河가 狀啓하기를, “섬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매우 많으니, 청컨대 香祝을 보내고 壇을 설치하여 제사하여 굶어 죽은 혼령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에 允허하였다. 친히 祭文을 지어 내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아! 毛羅 온 고장의 백성이 이런 不辰한 때에 태어나서 **기근을 거듭 당한 지 이제 3년째에 이르고**, 게다가 혹독한 疫病을 만나 열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낫지 못하며, 더구나 해외에 떨어져 있는 것이 육지와 달라서 곡식을 모으기가 어렵고 살길을 도모하기도 또한 어려우므로, 온 섬 안이 어쩔 줄 몰라 마치 兵火를 만난 듯하니, 내가 백성의 임금으로서 당연히 어떠한 생각을 하겠는가? …(중략)… **전후 4년 동안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자가 수천을 헤아리게 되고 마을이 텅 비어** 景況이 근심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후략)…”<sup>19)</sup>

B-6) (임을대기근 / 정조 17년, 1793) 掌令 姜鳳瑞가 상소하기를, “제주도는 여러 차례 흉년이 들었지만 **지난해처럼 추수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겨울부터 여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몇 천 명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올해 8월에 또 큰 바람이 연일 불어서 정의현과 대정현은 赤地나 다름없고 제주 좌면과 우면도 凶凶한 災해를 입어 내년 봄이면 틀림없이 금년보다 배나 더 굶주림을 호소할 것입니다.” …(중략)…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신 강봉서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굶어 죽은 섬사람들의 수를 신이 하나하나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別刀里 한 곳으로 말하더라도 주민이 불과 1백여 戶인데 굶어 죽은 사람이 80여 명이나 됩니다. 한 마을이 이 지경이니 온 섬을 미루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략)… 前 敎理 沈樂洙를 제주·대정·정의 등 고을의 按察御史로 임명하여 며칠 이내로 현지로 떠나게 하고 해당 수령을 임명하여 보내는 동안 목사 임무를 임시 대행하도록 하라.”<sup>20)</sup>

19) 『肅宗實錄』 권57, 숙종 42년(1716) 윤3월 9일 기사조.

20) 『正祖實錄』 권38, 정조 17년(1793) 11월 11일 경자조.

이처럼 현종과 숙종, 정조대에 연이어 기승을 부린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말미암아 당시 농사의 중요 동력이었던 마소까지 잡아먹어 목숨을 부지하는 가 하면,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는 다는 괴소문이 돌 정도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B-6)의 1793년(정조 17) 『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飢餓의 수치를 대략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당시 戶당 인구수가 6명<sup>21)</sup>인 점을 감안한다면, 별도리(濟州牧 동북권에 위치한 禾北里의 異稱) 1백여 호의 대략의 인구수는 600여명으로 추산되며, 따라서 약 13.3% 해당하는 제주민들이 굶어 죽어갔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제주에서 일어난 3번의 대기근 때마다 조선의 왕들은 별도의 御使를 제주에 들여보내 巡撫토록 했음이 B-2·5·6)의 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우선 경신대기근 때인 1671년(현종 12)에는 현종이 副校理 이하를 宣諭 御使로 삼아 보내어 기근으로 고생하는 제주민들을 보살피도록 했으며, 계정 대기근의 1716년(숙종 42) 숙종은 敎理 황구하를 濟州別遣御史로 파견하여 재해를 당한 제주민들을 위로하고, 賑政을 살피도록 하였다. 또한 임을대기근 때인 1793년(정조 17), 掌書 강봉서가 상소를 올려 제주도에 붙어 닥친 기근의 참상과 당시 제주목사 이철운, 정의현감 고한록의 부정을 고발한 사건을 계기로, 정조는 前 敎理 심낙수를 按察御史로 파견하여 죄상 조사 및 민란을 수습하게 했으며, 이듬해 그를 제주목사로 특별히 임명하여 여러 해 동안 극심한 재해를 입은 제주민들을 구휼하는 등 행정 전반을 살피도록 하였다.

이러 조선후기 위와 같이 제주도에 거듭하여 발생되었던 기근의 위기상황 속에서 조선정부는 어떠한 賑恤策을 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제주도에 행해졌던 진휼로는 크게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還糶에 의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와 타지역의 곡물을 이전하여 행해진 경우, 公物 蕩減 혹은 中止(廢止) 등의 경우, 空名帖 및 恤典을 발급하여 진휼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제주목사나 판관, 현감, 만호 등 개인의 私財를 出願하여 진휼한

21) 정조대 제주도내 호와 인구수가 모두 기재된 『正祖實錄』 권36, 정조 16년(1792) 12월 30일 기사의 호구(10,779호) 및 인구수(64,582명)를 고려해 봤을 때, 당시 호당인구수는 6명으로 추산됨.

사례를 몇몇 확인해 볼 수 있다.<sup>22)</sup> 하지만 제주지역 내에 환곡량이 적어 어사 파견을 통한 자체적인 기근 해결보다는 타지역에서 곡물을 이전해 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진휼형태로 나타났다. 즉, 이송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해난사고 발생 등 고충이 뒤따랐지만, 가장 확실한 진휼곡의 확보 방법이였기에 조선 후기 移轉穀을 이용한 진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숙종대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자연재해 및 흉황으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와 각 지역의 備蓄穀 또한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되면서 제주도로의 이전곡을 공급하는 영호남 연해읍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등 폐단이 생기기 시작했다.<sup>23)</sup> 이러한 이유로 진휼곡 확보가 어려워지자, 조선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활기를 띠던 상품화폐경제의 유통경제망을 활용하여 제주의 상품가치 큰 物産과 육지의 곡식 교역을 주관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 조치로 1704년(숙종 30) 전라도 영암 葛頭鎭에 제주 진휼을 위한 전담 곡식 창고를 만든 것이었다.<sup>24)</sup> 그런데 1713년(숙종 39) 이후 제주도에 흉년이 계속되어 막대한 양의 곡식을 제주도에 획급하여 비축곡이 줄어들면서 葛頭山 창고는 명맥만 유지한 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sup>25)</sup> 이후 1722년(경종 2) 충청도 공주와 연기 접경지역인 羅里津 근처에 위치하던 羅里浦倉이 전라도 임피로 이설되어 그 성격을 달리하면서 제주 진휼을 위한 전담 창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즉, 1720년(숙종 46) 금강 상·하류 지역 간의 魚鹽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하고, 어염 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진휼청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공주목에 설치되었던 나리포창<sup>26)</sup>이 2년 후인 1722년(경종 2), 제주도와 보다 근접한 곳에 위치한 임피로 이설되면서

22) 김현주, 『조선 후기 제주지역의 진휼비(賑恤碑)와 진휼실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4쪽.

23) 정형지, 『조선 후기 交濟倉의 설치와 운영 - 18세기 羅里浦倉 사례를 중심으로 -』, 『이대사원』 제28집, 이화여자대학교사학회, 1995, 190-191쪽.

24) 『備邊司謄錄』 권54, 숙종 30년(1704) 5월 30일자; 『備邊司謄錄』 권56, 숙종 31년(1705) 5월 17일자.

25) 이육, 앞의 논문, 506쪽.

26) 『羅里浦事實』 羅里浦新設節目, 『羅里浦事實』(奎 4559 소장)은 1720년(숙종 46) 賑恤廳에서 羅里에 舖를 열어 魚鹽을 팔게 한 뒤, 1794년(정조 18) 창고를 康津으로 옮길 때까지의 사실을 적은 책임.

기근시 제주도의 구제를 담당하는 기구로써 변화하게 된 것이다.<sup>27)</sup>

그렇다면 임피로 옮겨간 나리포창은 어떠한 방식으로 제주도의 기근시에 대처하였을까? 아래 C-1)의 영조대의 『비변사등록』 기사(1727년)와 18~19세기 조선왕조 財用, 軍政에 관한 제도 등을 집약한 사료인 『만기요람』(1808년), 정약용의 『경세유표』(1817년)의 C-2·3)의 기록을 통해 그 운영 내용을 살필 수 있다.

C-1) 좌참찬 김홍경이 아뢰기를, “전라도의 羅里浦倉은 대체로 제주의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주의 이전미를 魚物과 미역으로 받아 곡물로 바꾸어 本倉에 보관하였다가 제주의 구휼 밀천으로 쓰기로 한 것인데, …(후략)…”<sup>28)</sup>

C-2) 숙종 경자년(1720, 숙종 46)에 진휼청에서 공주·연기 접경지의 강을 임한 곳에 나리포를 설치하고, 선척을 많이 두어 貿販하여 聚穀하게 하였다. 경종 임인년(1722, 경종 2)에 탐라와 연결하게 하기 위하여 임피에 移設하고 비로소 別將을 두었다가 제주에 흉년이 들면 본포의 곡물을 섬 안에

27) ○ 『備邊司謄錄』 권88, 영조 6년(1730) 12월 3일자, 「이번 12월 초2일 초복 입시 때 공조판서 윤유가 아뢰기를, “지난번 제주목사 이수신의 장계를 보건대 나리포에 移轉한 곡물을 머물러두어 본주의 賑穀으로 삼게 해달라는 청이 있었습니다. **대저 나리포에 곡식을 둔 것은 先朝(경종)에서 설사람(제주사람)들이 거둬 기근을 당하여 곡물을 매년 나누어 보내기가 어려운 것을 진념하여 餽를 세워 경영하여 해산물로 쌀을 바꾸어 보낸 것입니다.**” …(후략)…」

○ 『備邊司謄錄』 권145, 영조 40년(1764) 5월 2일자, 비변사의 啓辭에, “羅里舖改節目을 한결같이 籠粟에 의해 써 넣을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 …(중략)… 羅里舖改節目 …(중략)… **지금 이후로는 濟州牧과 臨陂縣이 서로 공문을 보내 왕복 논의하면서 해산물 수송은 알마이며 作錢은 알마이며 貿米는 알마라고 서로 會錄한 뒤에 해마다 연말에 두 읍이 아울러 본도 監營에서 마감하고, 감영에서 審核하여 該廳에 통보하여 증빙할 것으로 하고, 차이가 나서 사실대로 하지 않으면 草記하여 논죄한다.** …(후략)…」

○ 『正祖實錄』 권44, 정조 20년(1796) 4월 20일 을미조, 「윤시동이 말하기를, “이는 정히 羅里舖의 일과 같습니다. **대개 나리포란 곧 고 재상 김창집과 조태제가 건의하여 공주에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애당초 湖西의 곡물장부에 잡힌 수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이를 설치하였는데, 10년도 되기 전에 곡물장부에 잡힌 수량이 잉여가 많이 나서 거의 10여 만 섬에 이르러서 한 도 전체가 매우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 뒤에 제주에서 몇 해 동안 기근이 계속된 것으로 인하여 그 곡물로 번갈아가며 구제할 물자로 삼기 위하여 임피로 옮겨 설치하였고** …(후략)…”

28) 『備邊司謄錄』 권81, 영조 3년(1727) 6월 11일자.

들여보내고 그 대신 갓양태·물고기·미역 등의 물건을 회계하여 가져와서 그것을 팔아 곡식을 사들여 차차로 이전하였다. …(후략)…<sup>29)</sup>

C-3) 숙종 경자년(1720, 숙종 46) 공주와 연기의 인접 지점에 나리포를 설치하고 선척을 비치하여 곡물을 판매하게 하였다. …(중략)… 『備局要覽』에 이르기를, “제주도에서 나오는 잡품들의 절반은 나리포에서 판매하고, 절반은 호남의 11개읍과 호서의 9개읍에 나누어 주는데, 그것은 竹帽簷, 駿帽, 網巾, 髭髮, 海帶, 香蕈, 橘皮, 全鰻 따위이다.” 했다. …(후략)…<sup>30)</sup>

상기 내용을 통해 나리포창의 운영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흥청에서 확급한 자금으로 곡물을 구입해 나리포창에 보관하였다가 제주에 흉년이 들면 이전하여 구제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주로부터 진흥곡의 댓가로 收捧한 총모자·양태·망건·가발·어물·미역·다시마·버섯·굴껍질·전복 등을 다시 나리포창에서 판매한 뒤, 그 수익금으로 이전에 제주로 보냈던 진흥곡을 보충하고, 나리포창의 각종 운영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때 진흥곡의 대가였던 물품들은 제주에서만 생산되거나 유리한 생산 조건을 갖춘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품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컸다.<sup>31)</sup>

요컨대 18세기 나리포창의 운영은 조선정부가 주도했던 제주와 육지 간의 물자유통을 대표하는 것으로,<sup>32)</sup> 당시 상품화폐경제 발달과 함께 전개된 경영 상업활동의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담당자의 운영소홀과 및 중간부정, 제주 토호 및 관속들의 부정부패, 나리포창 儲置穀의 고갈, 진흥곡의 댓가인 제주산 잡물(미역·양태 등)의 회수 지연 및 미납부의 증가, 해난사고 발생 등 수송의 어려움<sup>33)</sup> 등의 잦은 폐단 발생으로 인

29) 『萬機要覽』 『財用編』 6, 諸倉, 羅里舖倉條.

30) 『經世遺表』 卷12, 地官修制, 倉廩之儲 1.

31) 강은정, 「조선 후기 羅里舖倉의 설치와 운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6쪽.

32) 이욱, 앞의 논문, 507쪽.

33) 『비변사등록』 권155, 영조 47년(1771) 7월 26일자를 보면, 이전곡을 대신해 납부할 양곡을 신고, 나리포로 향하던 선박이 수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의로 침몰시키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해 나리포창의 기능은 유명무실화되어 갔다.

한편, 임피까지의 해상수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제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786년(정조 10) 제주 잡물의 납입처를 나주 濟民倉으로 옮겨 제주 토산물을 나주 부근 19읍에 나누어 판매토록 하였다.<sup>34)</sup> 나리포창을 나주로 옮긴 이후에도 그 운영에 있어 별다른 실효를 얻지 못하였으며, 제주 구제 목적의 본래 기능은 점차 퇴색되어 갔다. 이후 1794년(정조 18) 강진으로 이설<sup>35)</sup>된 나리포창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결국 廢置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정부 주도하의 나리포창 운영은 결국 지역적 유통망을 토대로 전국적인 유통권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교역의 경쟁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으며, 현지 토착세력과 관리들의 사적취용 및 식리활동 등으로 변질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만 것이다.

이렇듯 특히 조선후기 제주에 연이어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흉황과 기근이라는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에 조선왕조는 유교의 왕도적 민본주의에 입각하여 환곡운영, 공물탕감, 어사과전, 나리포창의 운영 등 각종 진휼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나리포창의 운영은 결과적으로 큰 실효를 보지 못했지만,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물자유동망의 확대·해상교통의 진보를 이뤘던 18~19세기, 제주 産物이 지닌 상품 가치에 주목해 이를 생산조건이 다른 지역과 상품교역을 실시함으로써 제주 진휼곡의 원활한 확보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보된 진휼정책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겠다.

위와 같이 조선시대 발생된 자연재해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진휼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당시 이러한 진휼정책과 관련해 제주도내 건립된 진휼비의 분포현황을 들여다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해당 표를 보면 조선시대 제주도에 건립된 진휼비는 총 76건으로, 경종대(1720~1724) 2기, 영조대(1724~1776) 1기, 순조대(1800~1834) 11기, 헌종대(1834~1849) 5기, 철종대(1849~1863) 13기, 고종대(1863~1907) 21기, 순종대(1908~1910) 1기,

34) 『備邊司謄錄』 권169, 정조 10년(1786) 10월 6일자; 『備邊司謄錄』 권170, 정조 11년(1787) 1월 4일자.

35) 『羅里浦事實』 羅里浦新設節目.

기타(건립시기가 19세기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연도를 모름) 22기가 확인된다. 이렇듯 제주도내 진흙비는 18~19세기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96%가 19세기에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는 앞서 살펴본 조선시대 시기별 진흙건수와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즉, 조선시대 제주도에 전개된 진흙은 숙종·영조대에 해당하는 18세기(45.9%)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표 3〉 조선시대 제주도내 시기별 · 신분별 진흙비 분포현황

신분	시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합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22세기	23세기			
①목사(정3품)									1명/1건		15명/61건	16명/62건	
②어사									1명/2건	-	-	1명/2건	
③판관(종5품)									-		4명/5건	4명/5건	
④현감(종6품)									-		5명/5건	5명/5건	
⑤참봉(종9품)									-		1명/1건	1명/1건	
⑥평민(양인)									-		1명/1건	1명/1건	
<b>합계</b>													<b>0명/0건</b>
<b>진흙건수</b>		<b>8건</b>	<b>10건</b>	<b>23건</b>	<b>56건</b>	<b>25건</b>	<b>2명/3건</b>	<b>26명/73건</b>	<b>28명/76건</b> <sup>36)</sup>	<b>122건</b>			

\* 자료 : 김현주,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진흙비(賑恤碑)와 진흙실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68~79쪽, <부록1. 진흙비 목록>을 바탕으로 표를 제작성함.

\* 출처 : 『제주시 비석일람』(2002), 『북제주군 비석총람』(2001), 『우리고장 비석들』(2009), 『남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2003), 『북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2002), 『제주시 문화유적 분포지도』(1998)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見任官自立碑」 조항에 따라 함부로 비를 세울 수 없었다. 임난이후부터 정조대까지는 비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폐단이 나

36) 18세기(2명/3건) : ① 목사(1명/1건): 홍중정, ② 어사(1명/2건): 황구하  
 19세기(26명/73건): ① 목사(15명/61건): 허명(1), 윤구동(10), 이원팔(1), 심영석(2), 한응호(1), 이원달(4), 구재룡(7), 장인식(6), 백희수(6), 정기원(6), 양현수(5), 조희순(3), 백낙연(7), 심원택(1), 이규원(1)  
 ② 판관(4명/5건): 김기홍(1), 송상순(2), 고경준(1), 김응우(1)  
 ③ 현감(5명/5건): 박상률(대정,1), 신상흙(정의,1), 강이진(대정,1), 강우진(정의,1), 강재오(대정,1)  
 ④ 참봉(1명/1건): 이기선  
 ⑤ 평민(1명/1건): 김만덕

타나면서 금지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순조대부터 세도정치로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통제권이 상실되면서 모든 지역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가 세워졌으며 한 사람이 비가 여러 개 건립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반영되어 제주도내 진흙비 또한 순조 이후인 19세기에 집중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신분별 진흙비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총 28명에 대한 진흙비 76건 중 제주목사와 관련된 진흙비는 16명/62건(57.1%/81.6%)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자체적인 기근 해결이 어려운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상, 이전곡 요청 및 공물탕감·폐지 등의 진흙을 실시함에 있어 제주도의 총책임자로 중앙에서 파견된 제주목사(정3품)가 큰 역할을 하였으며,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을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특히 판관(중5품) 및 대정·정의현감(중6품)인 경우 각자의 관할지역에서의 환곡의 탄력적 운영 및 사재출원을 통해 진흙비가 세워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제주목사나 어사에 비해 중앙과 연결고리가 미미한 탓에 비교적 제한적인 틀에서 자신들의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진흙을 펼친 것이라 볼 수 있겠다.<sup>37)</sup>

반면, 평민(양인)<sup>38)</sup>이자 여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재출원 등의 진흙을 펼친 행적이 기재된 비가 건립된 경우는 김만덕의 사례가 유일하다. 해당 비석은 1812년(순조 12) 김만덕의 사망 이후 집안에서 그녀의 치적을 후대까지 기리고자 생애와 행적 등을 비문에 적어 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제주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조선시대 건립된 진흙비는 18~19세기의 제주도의 사회상과 진흙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자료라 할 수 있겠다.

37) 김현주,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진흙비(賑恤碑)와 진흙살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9-60쪽.

38) 1812년(순조 12) 11월 12일에 건립된 김만덕 묘비(전면: 行首內醫女金萬德之墓)의 후면 초두에는 「김만덕의 본은 김해김씨요, 곧 탐라의 양인 집 딸이었다(金萬德本金海卽耽羅良家女也) …(후략)…」고 적고 있다.

### 3. 김만덕 생애 재고찰

18·19세기 제주도 출신의 名人을 꼽는다면 단연 金萬德을 들 수 있다. 김만덕[1739년(영조 15)~1812년(순조 12, 74세)]은 조선후기 변방의 섬, 제주도라는 지역적 한계와 여성과 천민이라는 성별적·신분적 굴레의 극복으로 축적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몇 년간에 걸친 대흥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제주민들을 구휼하였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 알려짐에 따라 출륙금지령 하에서도 제주 여성으로서 왕과 왕비를 알현했음은 물론, 醫女班首라는 직책을 수여받았고, 금강산 유람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당대 지식인들이었던 정치인, 학자, 문인들의 관심을 한몸을 받으며 많은 칭송의 글과 시, 편액 등이 집필되어졌다.

조선시대 한반도 최변방인 제주에서 그것도 기생 출신 여성이 재물을 풀어 백성을 구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실록 등 관찬사료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례적이라 할 수 있겠으며, 그녀의 행적에 대한 일련의 기록들은 사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적으로 집필·간행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들 간에는 그녀의 신분과 면천여부, 경제활동 등 재산 축적 방법, 구휼내용 등 서로 상이한 점들이 몇몇 발견되어짐에 따라 그 진실과 실상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김만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18·19세기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거시적이고 유기적인 맥락 속에서 그녀의 삶을 투영해 객관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김만덕이란 인물을 재평가해 그녀의 정체성을 재확립시킴으로써 그녀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 제시에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 1) 김만덕의 신분과 면천여부

김만덕의 신분과 면천여부<sup>39)</sup>에 대해 기록된 『일성록』을 비롯한 『승정원

일기』, 『정조실록』 등의 관찬사료 및 당대 여러 지식인들의 개인 문집, 그녀의 비문 등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비교하면 다음 <표 4><sup>40)</sup>와 같다.

다음 <표 4>를 보면 김만덕의 신분은 크게 4개로 구분되는데, 그 첫 번째로 기녀의 신분이다. 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기녀의 신분이 기재된 사료들 중 『승정원일기』와 조수삼의 『추재집』 권7 「만덕」에는 기녀와 관비, 기녀와 천인이 동시에 기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김만덕의 구휼 및 이에 따른 정조의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1796년(정조 20)의 『일성록』과 『승정원일기』의 기사 내용을 보면, ‘그녀의 나이가 늙었고 자식이 없으므로 면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단지 출륙하고자 하는 마음뿐<sup>41)</sup>(상을 받기도 원하지 않고 면천하기도 원하지 않고, 소원은 바다를 건너 서울로 올라가 금강산을 두루 보는데 있다)’<sup>42)</sup>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그녀가 義捐활동으로 58세 나이에 면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불구하고, 그녀 자신 스스로가 면천을 거부하고 있으며, 해당 기사를 통해 1796년(정조 20)까지도 김만덕은 면천되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면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 기녀의 신분으로 굳이 면천을 하지 않아도 사회·경제적 지위상 어려움이 없었던 것일까? 당시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보았을 때, 1801년(순조 원년)은 공노비 혁파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음에 따라 관기였던 김만덕에게 있어 면천의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의문은 여러 각도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듯 보인다. 한편 상기 사료에서 ‘임금(정조)이 말씀하시길, 그녀는 천한 기생으로서 의롭게 재물을 내놓아 진흙하는데 힘을 썼으니 가상하다’<sup>43)</sup>고 한다거나, ‘제주 기녀(비) 만덕을 내의원에 충원

39) 양정필, 「18세기 후반 金萬德의 경제활동 再考察」, 『사학연구』 제125호, 한국사학회, 2017, 250-251쪽 참조.

40)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총서Ⅱ』, 도서출판 각, 2008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표를 작성함.

41) 『日省錄』 정조 20년(1796) 7월 28일자.

42) 『日省錄』 정조 20년(1796) 11월 25일자; 『승정원일기』 정조 20년(1796) 11월 25일자.

43) 『日省錄』 정조 20년(1796) 11월 24일.

시켜 행수의녀로 임명하라<sup>44)</sup>라고 적고 있는 기사를 통해서도 그녀의 신분이 양인이 아닌 기녀의 신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과부의 신분인데, 이가환과 이재채를 비롯한 정약용의 시문집 3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부는 말 그대로 결혼한 후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가환은 「耽羅 寡婦」라 칭하고 있으며, 이재채는 과부의 또 다른 별칭으로 「濟州牧 寡女」라 적고 있다. 또한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권14 「題耽羅妓萬德所得搢紳大夫贈別詩卷」에서는 그녀의 4가지 희귀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 한가지로 「기적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妓籍守寡一奇也)」이라 꼽고 있다. 한편 채제공의 『만덕전』에는 그녀가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庸奴耽羅丈夫 不迎夫)」고 기재하고 있는 등 위의 내용과 다르게 서술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있다.<sup>45)</sup>

세 번째로 그녀가 면천되어 양인으로 환원된 경우이다. 해당 기록은 채제공의 『번암집』 권55 「만덕전」과 유재건의 『이향건문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해당 내용을 보면 ‘양가집 딸이었던 그녀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자 기녀의 집에 의탁하며 살았는데, 자라나자 관가에서 그녀의 이름을 妓案에 올렸고 20여세가 되었을 때 그 사정을 관가에 가서 하소연하니 이를 불쌍히 여겨 기안에서 그 이름을 없애고 양인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적고 있다. 두 사료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 아마도 후대의 유재건이 채제공의 글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채제공의 글처럼 그 당시 관기였던 김만덕이 단지 관가에 호소하는 행동만으로 쉽게 면천이 가능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녀가 20여세가 되는 1758년경 아무리 신분제 붕괴가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제주사회는 육지보다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1세기 늦게 전파되어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성리학적 이념이 도입·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과연 김만덕이 양인으로서의 환원이 가능하였는가

44) 『日省錄』 정조 20년(1796) 11월 25일; 『承政院日記』 정조 20년(1796) 11월 25일자.

45) 1981년 발간된 정미석의 소설 『名技列傳』 중 「濟州妓萬德」(신정사, 1981)에는 흠아비 高善欽과 혼인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어떠한 사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 보인다.<sup>46)</sup>

(표 4) 김만덕의 신분과 면천여부 관련 후대 전록 기사

순번	후대 전록 기사	기사내용		간행시기
		신분	면천여부	
1	『日省錄』, 1796년(정조 20) 6월 6일, 7월 28일, 11월 24일, 11월 25일자	기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老妓 만덕은 ...</li> <li>• 면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li> <li>•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그녀는 천한 기녀로서 ...”</li> <li>• 임금께서 명하시길, “제주 기녀 만덕을 내의원에 증원시켜 행수의녀로 임명하여 ...”</li> </ul>	1796년 (정조 20)
2	『承政院日記』, 1796년(정조 20)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8일자	기녀 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녀는 천한 기생으로서 ...</li> <li>• 면천하기도 원하지 않고 ...</li> <li>• 하교에 의해, 제주 婢 만덕을 差備待命 行首露女를 가실 ...</li> <li>• 관비였다. ... 비록 노닐며 천하게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하나 ...</li> </ul>	1796년 (정조 20)
3	『正祖實錄』, 1796년(정조 20) 11월 25일자	기녀	-	1796년 (정조 20)
4	채재공(1720~1799), 『樊巖集』 권19 「元春苦寒行」 / 권55, 「萬德傳」	기녀(官妓) 양가집 딸	양가집 딸 → 기녀의 집 의탁 → 관기 → 관가에 하소연 → 양인 환원	1824년 (순조 24)
5	이가환(1742~1801), 『錦帶詩文鈔』 「送萬德還耽羅」	과부	-	미상
6	김희락(1761~1803), 『故寔』 「奉教製進萬德傳」	기녀(州妓)	-	1878년 (고종 15)
7	박제가(1750~1805), 『貞齋閣集』 권4, 「送萬德歸濟州詩」	-	-	미상
8	이재채(정조~순조연간 활동), 『五園集』 「萬德傳」	과부	-	미상
9	이면승(1766~1835), 『感恩編』 권3, 「萬德傳」	기녀(府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래 양가집 딸 → 娼家에 고용 → 府에 속한 기녀로 발탁</li> <li>• 일개 천한 기녀로서 ...</li> </ul>	미상

46) 양정필은 김만덕이 20여세에 면천을 했다면, 당시 합법적인 면천 조건으로 자신을 대신할 노비 여러 명을 관청에 들여보낼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20여세에 불과한 그녀가 그만큼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김만덕은 면천된 적은 없고 관기, 관비 신분으로 살다가 그 賤役에서 벗어나게 되는 연령이 되어서 老除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적고 있다(「18세기 후반 金萬德의 경제활동 再考察」, 『사학연구』 제125호, 한국사학회, 2017, 255-256쪽 참조).

순번	후대 전록 기사	기사내용		간행시기
		신분	면천여부	
10	정약용(1762~1836), 『與猶堂全書』 권12, 辨, 「重瞳辨」 / 권14, 「題」	기녀 과부	妓籍의 실린 몸으로 과부로 수절/ 婢의 신분으로 역마의 부름을 받았고, 기녀로서 僧을 시켜 가마를 메게하였고	1934~38년
11	심노승(1762~1837), 『孝田散稿』 권7, 「桂織傳」	기녀	… 탐라 기녀 만덕이 곡식을 내어 진흙하니 …	미상
12	조수삼(1762~1849), 『秋齋集』 권7, 「萬德」	기녀 천인	만덕은 제주기녀나 … 소원을 묻게하였다. 대답하기를 “저는 여자이며, 천인이옵니다. …”	1939년
13	이희발(1768~1849), 『雲谷先生文集』 권8, 「萬德傳」	기녀(州妓)	• 만덕은 사양하여 말하기를, “… 저는 천인이며, …” • 만덕은 海島의 倡妓라는 천한 신분으로 …	1899년 (고종 36)
14	유재건(1793~1880), 『里鄉見聞錄』 「萬德」	양가집 딸	양가집 딸→기녀의 집 의탁→기녀→관가에 하소연→양인 환원	1862년 (철종 13)
15	이원조(1792~1872), 『耽羅誌草本』 권2, 「義妓萬德」	기녀	양가의 딸→기녀	1841년 (헌종 7)
16	미상, 『耽羅誌』 「義妓萬德」(동경대 소장)	기녀	양가의 딸→기녀	1848년 이후 (헌종 14)
17	김석익(1885~1956), 『耽羅紀年』 권3 「行首 萬德傳」	양가집 딸	양가집 딸→교방에 의탁	1918년
18	김두봉(1887~?), 『濟州島實記』 「烈女」	-	교방에 의탁	1932년
19	淡水契, 『增補耽羅誌』 「人物」	양가집 딸	양가집 딸→교방에 의탁	1954년
20	김태능(1906~1972), 『義女 金萬德傳』(1971)	양가집 딸	양가출생→기녀의 집 의탁→관기→관가에 하소연→양인 복귀	1971년
21	金萬德 墓碑文	양가집 딸	양가집 딸→교방에 의탁	1812년 (순조 12)

한편 체제공의 『변암집』은 권수를 달리해 그 신분을 혼용해 기재하고 있다. 즉 『변암집』 권19 「元春苦寒行」에는 앞의 권55 「萬德傳」의 양인 환원 내용과 달리 ‘탐라의 기생 만덕이 천금을 내놓아 주린 백성을 진흙하였다’고 적고 있다. 반면, 『변암집』 권55에 실린 「만덕전」에 의하면 체제공이 서울에 올라온 김만덕을 한두 번 직접 만났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체제공이 해당 글을 그녀와의 만남을 통한 대화에 의거해 저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양인으로 환원되었다는 내용은 김만덕의 구술을 토대로 기재되었을 가능성<sup>47)</sup>이 크다 하겠다.

하지만 김만덕을 직접 만난 또 다른 인물인 정약용 『여유당전서』의 글 2편 모두에는 그녀를 제주(탐라) 기녀로 적고 있으며, 기적의 실린 몸으로 과부로 수절함, 婢의 신분으로 驛馬의 부름을 받음, 기녀로서 僧을 시켜 가마를 메게 했다는 등 그녀의 신분을 妓女 혹은 婢로 적고 있다. 이에 체제공의 『만덕전』에서만 확인되는 김만덕의 면천에 대한 기록을 과연 사실로써 정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김만덕의 신분을 애매모호하게 기재한 경우이다. 즉, ‘그녀는 양가집 딸로, 부모를 여의고 형편이 어려워지자 교방에 의탁되었고, 근검절약으로 큰 재산을 이루었다고만 적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적힌 사료는 20세기 이후에 편찬된 김석익의 『탐라기년』과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담수계의 『증보탐라지』를 비롯한 김만덕의 묘비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선 시기 사료와 달리 教坊에 의탁된 후, 妓案에 그 이름이 올려졌다거나 혹은 관가의 읍소를 통해 양인으로 환원되었다거나 하는 면천내용이 제외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아마도 20세기 그녀에 대한 업적을 저술하는 가운데 기녀란 신분의 부담스런 역사적 사실을 인위적으로 삭제해 기록되어져 전승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표 4>의 후대 전록 기사들의 대조를 통해 김만덕의 신분과 면천여부를 다시금 재고찰 해보면, 김만덕의 구술 및 이에 따른 정조의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1796년(정조 20)의 『일성록』, 『승정원일기』, 『정조실록』 등의 관찬사료와 당대 여러 문집 및 그녀의 비문 내용을 미뤄봤을 때, 그녀가 20여세 때 면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1796년(정조 20) 58세가

47) 丁若鏞, 『與猶堂全書』卷12, 『重瞳辨』의 내용을 보면, 김만덕이 스스로 重瞳(겹으로 된 눈동자)이라 말하고 다님에 세상이 떠들썩하였는데, 이를 정약용이 직접 그녀를 만나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김만덕은 체제공과 정약용 등의 지식인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포장해 소개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며, 蔡濟恭의 『樊巖集』 권55, 『만덕전』에 기재된 免賤 사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겠다(양정필, 앞의 논문, 256쪽 각주 59 참조).

된 그녀가 義捐활동으로 서울로 상경해 정조를 알현할 당시에도 면천되지 않은 官妓 신분이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김만덕은 기녀의 신분으로 재산을 축적해 巨富로 성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녀로서 재산을 축적한 김만덕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김만덕의 재산축적 방법

김만덕은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 1795년(정조 19), 제주의 대기근시 義捐활동을 펼쳐 제주민들을 구휼할 수 있었던 것일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양인으로 환속된 김만덕은 건입포구 일대에 客主를 차려 제주의 특산물인 말총, 미역, 전복, 표고, 버섯, 양태, 우황, 약초, 녹용, 꿀 등을 수집했다가 육지 상인에게 공급하였고, 제주의 양반, 부녀자나 기녀들을 대상으로 육지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파는 유통업을 했으며, 또한 척박한 제주에서 귀한 육지의 쌀과 소금을 들여와 많은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적고 있다. 이후 관가의 물품도 공급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船商을 유치하고 자신의 배까지 소유하면서 포구의 전 상권을 장악, 제주의 최고 거상이자 최고의 CEO가 되었다’<sup>48)</sup>고 전해진다.

과연 김만덕의 재산 축적의 원천은 객주업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승정원일기』 및 여러 개인 문집, 비문 등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해당 표에서의 김만덕의 재산축적 방법은 크게 기녀활동, 매점매석, 유통업, 근검절약, 객주업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

48) 김만덕기념관 내 안내패널 참조.

(표 5) 김만덕의 재산축적 관련 후대 전록 기사

순번	후대 전록 기사	경제활동	
		내용	종류
1	『承政院日記』, 1796년(정조 20) 11월 28일자	제주의 官婢였다. … 비록 노닐며 천하게 몸을 파는 여자라고 하나 몸가짐과 일처리를 함에 명분을 가지고 처신하여 제주의 관리들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였다. 재산이 넉넉하고 의로움에 돈독하여 …	기녀활동
2	채재공(1720~1799), 『樊巖集』 권55, 『萬德傳』	재화를 늘리는데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놓거나 했다. 그런지 몇 십년만에 제법 부자로 이름이 드높았다. … 만덕이千金을 내어 쌀을 육지에 사들었다.	매점매석
3	이면승(1766~1835), 『感恩編』 권3, 『萬德傳』	배를 만들어 쌀을 사들이고, 점포를 차려 놓고 糶驤(삿갓과 말총)을 판매하니, 재물이 쌓여 자못 넉넉하였다.	운수업 유통업
4	심노승(1762~1837), 『孝田散稿』 권7, 『桂纖傳』	만덕은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문득 그 옷가지 빼앗으니 갖고 있는 남자의 바지저고리가 수백벌이 되었다. 매번 쪽 늘어놓고 햇볕에 말릴 때면 郡의 기녀들조차 침을 뱉고 욕하였다. 北商이 만덕으로 인해 꽤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더니 이리하여 그녀는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기녀활동
5	유재건(1793~1880), 『里鄉見聞錄』 『萬德』	재화를 늘리는데 재능이 있어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놓거나 했다. 그런지 몇 십년만에 제법 부자로 이름이 드높았다.	매점매석
6	이원조(1792~1872), 『耽羅誌草本』 권2, 『義妓萬德』	生身を 잘 다스려 수천금을 이루었다.	기녀활동
7	미상, 『耽羅誌』 『義妓萬德』(동경대 소장)	生身を 잘 다스려 수천금을 이루었다.	기녀활동
8	김석익(1885~1956), 『耽羅紀年』 권3 『行首 萬德傳』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教坊에 의탁한 바가 되었는데, 근검하여 큰 재산을 이루었다.	근검절약
9	김두봉(1887~?), 『濟州島實記』 『烈女』	근검절약으로 재산을 점점 늘렸다.	근검절약
10	淡水契, 『增補耽羅誌』 『人物』	옷을 줄이고 음식을 덜어 재산이 커지게 되었다.	근검절약
11	金萬德 墓碑文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教坊에 의탁한 바가 되었으나, 의복과 식비를 줄여 큰 재산을 모았다.	근검절약
12	김태능(1906~1972), 『義女 金萬德傳』(1971)	객주업 → 육지 및 도내 상인들에게 물자의 알선과 매매와 위탁사업 → 육지와의 물물교환 방매(제주특산물 ↔ 곡식)	객주업 위탁업 유통업

그 첫 번째로 <표 5> 순번 1, 4, 6, 7의 김만덕이 기녀활동에 의해 재산을 축적하였다는 내용은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를 비롯해 심노승의 『효전산고』, 제주목사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탐라지』(동경대 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이때 심노승[1762(영조 38)~1837(헌종 3)]과 이원조[1792(정조 16)~1872(고종 8)]는 직접 제주도로 건너와 생활했던 인물로, 심노승은 제주목사(재임시기 : 1794년 3월~1794년 10월)로 부임한 아버지 심낙수를 따라 1794년 5월 제주도에 와서 4개월 정도 머물렀으며, 자신의 시문집인 『효전산고』 권7 「계섬전」에 자신이 제주에 있을 당시, 김만덕[1739년(영조 15)~1812년(순조 12)]에 대해 들은 상세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글은 다른 글들에 비해 유독 김만덕의 재산 축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쓰여졌다.<sup>49)</sup> 즉, 심노승의 글 속에 등장하는 김만덕의 행위는 기녀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돈을 보고 따랐다(돈이 다하면 떠났다거나, 그 옷까지 빼앗으니 갖고 있는 남자 옷이 아주 많았다거나, 군의 기녀들이 욕하였다 등의 내용은 상인보다는 기녀에 대한 묘사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글에서 ‘北商’이란 단어의 등장은 김만덕과 육지 본토상인과의 교류를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김만덕이 妓房이 아닌, 客主를 운영하였다는 것을 추론해 볼 여지가 있다 하겠다.<sup>50)</sup> 요컨대 심노승이 김만덕에 대해 써내려간 이야기는 다소 부정적이긴하나, 그녀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그가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에 직접 들은 김만덕의 이야기를 적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글보다 신빙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이원조는 김만덕이 이미 사후한 19세기 중반에 제주목사(재임시기 : 1841년 윤3월~1843년 6월)로 재임하였으며, 이 당시 제주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를 『탐라지초본』에 담아내고 있다. 해당 사료의 권2, 「義妓萬德」

49) 심노승의 시문집인 『孝田散稿』 권7, 「桂織傳」은 그가 老歌妓 계섬의 인생 유전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쓴 작품이다. 만덕과 관련된 기록은 「계섬전」 후미에 붙어 있는데, 계섬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뒤 그와 상반되는 인물로 만덕을 평가하고 있다(김준영,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제17집, 2000, 13쪽).

50) 양정필, 「18세기 후반 金萬德의 경제활동 再考察」, 『사학연구』 제125호, 한국사학회, 2017, 260쪽 참조.

에는 그녀를 의로운 일을 한 기녀라 칭하면서 ‘生身을 잘 다스려 수천금을 이루었다고 적고 있는 등 그녀의 재산 축적은 기녀활동으로 비롯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만덕의 기녀생활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는 것을 조선 후기 기생에 대해 기록한 다음의 D-1·2) 사료들을 통해 뒷받침이 가능하다.

D-1) …(중략)… 데리고 기르는 妓에 이르러서는 총애하는 것을 믿고 스스로 건방져서 세력이 굉장하여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鄉所 이하는 연고를 따라 부탁하는 것을 사람들 모두가 보통 일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간혹 政令에도 폐를 끼치지 않음이 없어서, 세상에 이르기를 ‘濟州妓의 권세가 무겁다는 것은 믿어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 따끔하게 혁파하고 싶어 妓籍에 들어 있는 가운데 매우 우매한 技藝色과 나쁜 짓을 하는 추악한 자 7, 8명을 강등시켜 供子로 정하였다 …(후략)…51)

D-2) • 耽羅名妓簇成行 每向遊人試革囊(담라 名妓들 무리지어 다니며, 늘 한량들 돈주머니 뒤집기 시험한다더라) …(후략)…  
 • …(중략)… 可憐土俗輕題品 官妓虛當第一科 方言有一妓生 二官奴 三衙前 四假率 五鄉所 六先輩之語(안타까워라 土俗에 사람살이 값 매김 가벼워 官妓가 헛되이 第一品이 되었구나. 지방사람들 말에 첫째 기생, 둘째 관노, 셋째 아전, 넷째 가솔, 다섯째 향소, 여섯째 선비라는 말이 있다)52)

D-1)은 1694년(숙종 20) 제주목사(재임시기 : 1694년 7월~1696년 9월)로 부임했던 이익태의 문집인 『지영록』으로, 재임당시 열 가지 증감시킨 일(增減十事) 중 열 번째로 妓籍의 혁파를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제주기녀들은 하급 관리들의 총애를 얻으며 본분을 넘어 뇌물을 받는

51) 李益泰, 『知瀛錄』 『增減十事』.

52) 南九明, 『寓庵文集』 卷之一.

일들이 비밀비재하는 등 권세가 매우 높음에 따라 이익태는 이러한 적폐를 혁파하게 이른 것 같다고 보여진다. 또한 D-2)는 1712년(숙종 38) 제주관관(재임시기 : 1712년 10월~1715년 5월)으로 부임했던 남구명의 문집인 『우암문집』에 기재된 시이다. 해당 시를 보면, 제주기녀들이 남자들의 돈을 취하는 행동이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관기가 제일품’이라는 내용이 보이고, 이에 대한 補註로 “지방 사람들 말에 첫째는 기생”이라고 덧붙여 놓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하급 관리들과 결탁하여 삶을 영위하던 기생들의 기세가 남달랐다고 보여진다.<sup>53)</sup>

이렇듯 위의 D-1·2)의 글은 조선후기 당시 제주기녀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앞서 설명한 김만덕이 기녀활동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심노승과 이원조의 문집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한편, 그 두 번째로 <표 5>의 순번 2, 5를 보면, 그녀의 또 다른 재산축적 방식이 제기된다. 채제공의 『번암집』을 비롯한 유재건의 『이향건문록』에는 김만덕의 경제활동에 대해 ‘그녀는 재화를 늘리는데 재능이 있어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어 팔거나 쌓아 놓는 등, 몇 십 년만에 제법 부자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많이 사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보관해 두는 행위, 즉 매점매석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점매석의 양상은 조선후기 都賈의 출현에 기반하는데, 이때 도고란 비특권 상인으로 자본력과 상술을 갖추고 상품유통과정에서 독점적 매점상업을 영위한 자들을 일컫는다. 따라서 채제공은 김만덕을 私商都賈로 인식, 상품의 유통을 독점해 매점매석을 통해 엄청난 부를 얻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표 5> 순번 3의 이면승의 「만덕전」에는 ‘김만덕이 배를 만들어 쌀을 사들이고, 점포를 차려 놓고 샷과 말총을 판매하니, 재물이 쌓여 자못 넉넉하였다’고 구체적인 경제활동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53) 강경호, 『제주 교방(敎坊) 관련 예술의 전통과 문화원형 탐색을 위한 이론적 고찰』, 『국제어문』 제 79집, 2018, 198-199쪽.

모습은 앞서 설명한 18~19세기 제주민의 해상활동 양상과 일치함을 보인다. 즉, 18~19세기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못했음은 물론, 물자가 육지로부터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던 지역이었으며, 場市 또한 없었다.<sup>54)</sup> 이렇듯 장시가 존재하지 않고,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던 18~19세기 제주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상품유통 및 교역을 했을까?

18세기 중엽은 육상과 해상 모두 광역의 유통망이 갖춰진 시기였다. 이에 제주민들은 육지와의 상매를 위한 本錢으로 미역·전복·涼臺 등의 제주의 특산물을 그 원천으로 삼아 바다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 제주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곡물과 상호 거래하는 등의 상업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이러한 사회·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김만덕 또한, 선박을 이용해 육지를 오가며 가격 차이가 심한 물건을 사고파는 방식인 유통업을 통해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면승의 글 속에는 ‘점포를 차려놓았다’는 기록이 덧붙여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김만덕이 客主業을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 해준다. 하지만 당시의 객주는 주요 포구에 위치하여 창고·여관·위탁 판매·운수업·금융업 등을 겸하고 있었는데, 해당 글에서는 이러한 객주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음에 따라 그녀가 객주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은 단정하기에는 힘들다 하겠다.

1차 사료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김만덕 객주터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추정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297번지 일원에는 김만덕 객주가 복원되어 김만덕마을협동조합에 위탁·운영되어지고 있다. 김만덕 객주가 해당 위치에 건립되게 된 배경에는 2008년부터 시작된 김만덕 객주터에 대한 고증학술조사<sup>55)</sup> 결과에서 비롯된다. 즉, 건입포 인근의 산지천변은 1928년 산지항 축조 공사시 전한과 후한시대(BC 206~AD 220)에 주조·통용되었던 오수전 4매와

54) 李源祚, 『耽羅誌草本』 土俗條, 「고을(제주)에는 場市가 없고, 재화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포목만 사용하므로 매매가 매우 어렵다.」

55)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 객주터 기본조사 및 유적터 고증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 기념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1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 객주터 재현사업 학술용역보고서』, 도서출판 각, 2012.

동검, 王莽시대 貨泉 11매 등이 출토되는 등 오래전부터 제주와 외부(육지)와의 교역에 있어 관문역할을 해왔으며, 조선시대 濟州牧官衙 등의 관청과 인접해 있음은 물론, 영등신을 모시고 어부·해녀들이 안전조업을 기원하는 칠머리당굿터 등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간직한 복합적인 공간적 요소로 말미암아 김만덕의 객주터가 건입포에 위치했을 것이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김만덕 객주의 건입포 위치 비정은 논리적 근거가 다소 부족한 듯 보인다. 즉, 1601년 김상헌의 『남사록』의 기록을 보면, 제주민들의 불법적인 출륙을 막기 위해 제주 도내의 朝天, 別刀(禾北) 두 포구만을 한정시켜 개항하도록 했으며, 출항시 出船記의 항목을 꼼꼼히 대조하며 점검하는 등의 통제책을 전개했음<sup>56)</sup>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04년 이형상의 『남한박물』 「路程」조에도 “수색검사하는 일이 있는 까닭에-(목사 군관은 기록부로 이름을 점검 조사하여 그 간사하고 거짓됨을 막는다)-화북포와 조천포 두 포구 외에는 으레 다른 포구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sup>57)</sup>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19세기 제주민의 표류와 외국선박의 표도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제주계록』<sup>58)</sup> 내 98건의 제주민 표류사건 가운데 漂還人들을 대상으로 한 問情記를 살펴보면, 표류 전 출항지 및 송환 후 입항지에 대해 진술해 놓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제주-육지본토와의 왕래시 어느 포구에서 입출항이 빈번하게 이뤄졌는지 대해 짐작 가능하다. 즉, 98건 중 제주도내 포구를 출항지로 한 46건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화북포 9건 > 우도 6건 > 조천포·우(위)미포·신산포 각 3건 > 오조포·가파도 2건 순으로 나타나며, 건입포는 단 1건만이 확인됨을 볼 수 있다. 또한 표류후 송환과정에서의 입항 포구를 기재한 사례는 48건으로, 화북포 22건 > 조천포 17건 > 애월포 3건 > 김녕포

56) 金尙憲, 『南槎錄』 권3, 10월 12일, 「을묘(1579, 선조 12) 이후로부터는 私船이 임의로 출입하였으므로 島中의 避役하는 사람이 이따금 배를 타고 육지로 달아났다. 그 때문에 다만 朝天, 別刀 두 포구에 대하여서만 배를 놓기를 허가하고, 배를 놓는 날에는 목사와 군관 1인이 文溇를 잡아 대조하고 점검하여 이것을 出船記라고 하였으며, 비록 1인 1마라 할지라도 감히 숨기지 못하게 하고, 나쁜 일을 막는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었다.」

57) 李衡祥, 『南宦博物』, 路程條.

58) 『제주계록』은 조선 현종 12년(1846) 2월 26일부터 고종 21년(1884) 11월 6일까지 濟州牧에서 중앙 조정으로 보고했던 계문이다.

2건〉별방포·세화포·귀일포·건입포 각 1건 순으로 확인된다.<sup>59)</sup> 이에 조선후기인 17~19세기, 제주도와 육지를 왕래하는 주요 관문으로 濟州牧 동북권에 위치한 別刀浦(禾北浦의 異稱)와 朝天浦가 官浦 역할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선박들은 이 두 곳을 통해 오고 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만덕이 객주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을 경우 해당 객주는 지금의 건입포가 아닌 화북포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 수 있겠으며, 지금까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김만덕의 객주업 운영 및 객주의 건입포 위치에 대해서는 향후 재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 〈표 5〉 순번 8~11의 그녀의 묘비문을 비롯한 19세기 편찬된 사료들을 보면, 그녀의 재산 축적 원천을 자본주의 경제 원리와 반대되는 근검절약에 있다고 간략히 기재해 놓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1971년 김만덕기념사업회의 요청으로 저술된 순번 12, 김태능의 『의녀 김만덕전』에서 비로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김만덕의 구체화된 객주업을 통한 부 축적 내용을 접할 수 있다.<sup>60)</sup> 내용인즉, ‘그녀는 주막을 겸한 객주업을 시작으로 도내 상인들에게 물자의 알선과 매매와 위탁 사업 경영으로 번영해 나갔다. 시기에 따라 미역과 마른전복, 말총, 양태 등 제주 특산물을 수집해 이를 강경과 기타 지방에 海運하여 판매하고, 귀로 선편에는 일용 잡화와 백미와 잡곡 등도 사다가 팔았는데, 특히 백미와 잡곡은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물물 교환하여 방매하여 이익을 보았다. 이에 만덕은 나중에 육지 본토와 직접 교역하는 거상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표인영래등록』과 『제주계록』 속 18~19세기 제주민들의 제주도와 육지본토와의 해상교류를 통한 상업활동 양상과 동일함을 보여준다. 요컨대 김태능은 김만덕에 대한 선양작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후대 전록 기사와 당시 제주도의 경제활동을 담은 여러 사료들을 바탕으로 김만덕의 부 축적 방식을 객주업이라 명명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김만덕을

59) 김나영, 『조선시대 濟州島 漂流·漂到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347-366쪽, 〈부록 1. 표류 제주인 연표〉 중 『제주계록』의 출전만을 추출하여 통계냄.

6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사업회, 『恩光衍世』, 도서출판 각, 2007, 15-41쪽.

巨商이라 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김태능에 의해 처음 제기된 김만덕 객주설은 20세기 기녀란 신분을 삭제해 애매모호하게 기재해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후 문학적인 윤색과 확대를 거듭하면서 정설로써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sup>61)</sup>

따라서 상기 <표 4>와 <표 5>의 역사적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김만덕은 18세기 당시 명망 높은 기녀로서 제주도내 관리 및 지방의 유력 토호세력, 부호들을 비롯해 제주도를 왕래하는 육지 상인들을 상대로 한 妓房 혹은 舖를 기반으로 매점매석 등의 운영방식을 통해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 3) 김만덕의 진흙 실타래

김만덕[1739년(영조 15)~1812년(순조 12, 74세)]이 왕성히 활동하던 시기는 ‘임을대기근[1792년(정조 16)~1795년(정조 19)]’에 속한 시기로, 이 당시의 극심했던 제주도의 상황은 아래의 『정조실록』 기사에 생생히 기록되어져 있다.

E-1) …(중략)… 전 제주목사 십낙수가 장계를 올려 아뢰기를, “올해 세 고을의 농사는 간간이 단비를 만나 크게 풍년이 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8월 27일과 28일에 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기와가 날아가고 돌이 굴러가 나부끼는 것이 마치 나뭇잎이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곡식이 짓밟히고 피해를 입은 것 외에도 바다의 잔물에 마치 김치를 담근 것같이 절여졌습니다. 80, 90세 되는 노인들도 모두 이르기를 ‘전전 계사년(1713)에 이런 재해가 있었는데 올해에 또 이런 재해가 있다.’고들 하였습니다. 대정과 정의의 피해가 더욱 심한데, 온 섬 안의 각 면과 리에

61) 정비석, 『제주기 만덕』, 『명기열전』 6, 신정사, 1981; 부영성, 『김만덕』, 『구좌읍지』, 태화문화사, 1986; 김봉옥, 『(久遠의 女人像)金萬德』, 제주도, 1989; 김봉옥, 『김만덕전 : 의병항쟁기 및 조봉호 전』, 제주문화, 1990; 양중해, 『(제주의 사람과 사람들)김만덕의 자전』, 『제주문화』 제6호, 제주문화원, 1999.

좀 낮고 못한 등급을 나눌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은 큰 흉년은 고금에 드문  
것입니다. …(후략)…<sup>62)</sup>

E-2)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제주의 삼읍은 제작년(1794) 겨울에 抄錄한  
굶주린 인구가 62,698口이었는데, 작년 겨울(1795)에 초록한 굶주린 인구  
는 47,735口였으니, 1년 사이에 17,963口(오류/ 14,963口)가 줄어들었습  
니다. 그렇다면 굶주렸거나 병든 것을 막론하고 이는 다 죽은 숫자입니다.**  
조정에서 島民들을 염려한 것이 전후로 어떠하였습니까. 심지어 ‘한 지아  
비가 살 길을 잃으면 하룻동안 음식을 정지하겠다.’는 하교까지 있었습니  
다. 그런데 그곳 수령들이 잘 對揚하지 못하여 호구의 감축이 이처럼 많게  
되었으니 해당 목사 이우현에게 속히 行遣의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따  
랐다.<sup>63)</sup>

E-1)의 기사는 1794년(정조 18, 갑인년) 전 제주목사 삼낙수가 올린 장계로,  
갑자기 불어 닥친 초대형 태풍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潮風害를 입는 등 4년  
간에 걸친 임읍대기근의 절정기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E-2)는 제주  
기민 구제를 위한 진휼곡 이송 등 조선정부의 끊임없는 구휼 노력<sup>64)</sup>에도  
불구하고, 1795년(정조 19, 을묘년)에는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 전 해(1794년)  
보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 따라 우의정 윤시동이 구황을 제대로 못한  
제주목사 이우현에게 행건의 법을 시행토록 건의하고 있다. 이렇듯 1794~95년  
제주도의 잇따른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흉작과 기근발생은 수많은 饑餓者 및  
疾病者를 속출하게 하는 등 그 빈곤 규모가 매우 심각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주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지녔던 김만덕은 이러한 제주도의

62) 『正祖實錄』 권41, 정조 18년(1794) 9월 17일 신축조.

63) 『正祖實錄』 권44, 정조 20년(1796) 1월 15일 임술조.

64) 『正祖實錄』 권42, 정조 19년(1795) 윤2월 3일 을유조에 따르면, 구휼곡을 싣고 제주로 가던 선박  
5척이 강풍으로 침몰하면서 수백 톤에 달하는 곡식이 못 쓰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휼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피폐한 상황을 목격하였고, 1795년(정조 19) 사재를 출원하여 수많은 제주 기민들을 구휼하였다. 그렇다면 김만덕의 진휼 규모는 어떠하였을까? 여러 사료 및 비문 속에 나타난 김만덕의 진휼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김만덕의 진휼 관련 후대 전록 기사

순번	후대 전록 기사	진휼내용	진휼수량
1	『日省錄』, 1796년(정조 20) 6월 6일, 7월 28일, 11월 24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老妓 만덕은 스스로 원하여 쌀 3백 석을 바쳤습니다.</li> <li>• 老妓 만덕은 굶주리고 궁핍한 백성들을 진휼하고 구제함으로써...</li> <li>• 친한 기생으로서 의롭게 재물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데 힘썼으니...</li> </ul>	300石
2	『承政院日記』, 1796년(정조 20) 11월 24일, 11월 28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롭게 재물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데 힘을 썼으니...</li> <li>• 재물을 내어 가난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구휼하니, 전후로 살아난 사람이 수천명이 되었다.</li> </ul>	-
3	『正祖實錄』, 1796년(정조 20) 11월 25일자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들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
4	채재공(1720~1799), 『樊巖集』 권19 「元春苦寒行」 / 권55, 「萬德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千金을 내놓아 주린 백성을 진휼하였다.</li> <li>•千金을 내어 쌀을 육지에 사들였다.</li> <li>•네, 일개 여자로서 義氣를 내어 주린 백성 천여 명을 구제했으니 가목한 일이다.</li> </ul>	千金
5	이가환(1742~1801), 『錦帶詩文鈔』 「送萬德還耽羅」	쌀을 사들여 주린 사람들을 진휼하였다.	-
6	김희락(1761~1803), 『故庵』 「奉教製進萬德傳」	600斛을 내어 진휼하니 탐라 백성들이 10일을 연명할 수 있었다.	600斛
7	박제가(1750~1805), 『貞菴閣集』 권4, 「送萬德歸濟州詩」	곡식을 내놓아 백성을 진휼하였다.	-
8	이재채(정조~순조), 『五園集』 「萬德傳」	만덕은 수백 석의 곡식을 저축하였는데, 이때 곡식을 풀어 구휼하여 목숨을 구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
9	이면승(1766~1835), 『感恩編』 권3, 「萬德傳」	돈을 풀어 쌀을 사다가 수천 명의 목숨을 살렸다.	-
10	정약용(1762~1836), 『與猶堂全書』 권14, 「題」	많은 돈을 가져이 내놓은 것	-
11	심노승(1762~1837), 『孝田散稿』 권7, 「桂織傳」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
12	조수삼(1762~1849), 『秋齋集』 권7, 「萬德」	수천석의 곡식과 수천페미의 돈을 내어 한 고을의 백성을 진휼하여 살려내었다.	數千斛穀 數千緡錢

순번	후대 전록 기사	진흥내용	진흥수량
13	이희발(1768~1849), 『雲谷先生文集』 권8, 『萬德傳』	곧 저축하였던 600斛을 내놓아, 진흥하여 온 고을의 백성 열흘의 목숨을 연장시켰다.	600斛
14	유재건(1793~1880), 『里鄉見聞錄』 『萬德』	千金を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 그 중 1/10을 취해 그의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날랐다.	千金
15	이원조(1792~1872), 『耽羅誌草本』 권2, 『義妓萬德』	재산을 내놓아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흥하였다.	-
16	미상, 『耽羅誌』 『義妓萬德』(동경대 소장)	재산을 내놓아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흥하였다.	-
17	김석익(1885~1956), 『耽羅紀年』 권3 『行首 萬德傳』	재산을 내놓아 곡식을 운반하여다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다.	-
18	김두봉(1887~?), 『濟州島實記』 『烈女』	큰 술 돌을 걸어놓고 궁죽을 쭈어 한 사람에게 한 그릇씩 나누어 주며 많은 재물을 풀어서 사망의 곡식을 사들여 정월부터 4월까지 한결까지 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제하였다.	-
19	淡水契, 『增補耽羅誌』 『人物』	가산을 전부 내놓아 양곡을 사서 운반하여 빈민을 구제한 것이 매우 많았다.	-
20	金萬德 墓碑文	정조 을묘년(1795) 도민이 크게 굶주릴 때 능히 재산을 기울여 곡식을 육지에서 운반하여 매우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렸다.	-

상기 <표 6>의 김만덕의 진흥 관련 내용을 보면 재산을 풀거나(내놓아), 쌀을 (육지로부터) 사들이거나 혹은 곡식을 풀거나(내놓아), 곡식과 돈을 모두 내놓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기민 구제 방식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 중 70%가 공통적으로 쌀을 내놓아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흥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때 당시 제주의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말미암아 미곡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쌀은 육지로부터 사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몇몇 사료에서는 쌀을 육지로부터 사들여 구휼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반면 진흥 내용 중 그 수량을 기록함에 있어 사료들 간에 상이점이 확인되며, 대부분의 사료들에서는 구체적인 진흥 수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수량이 기재된 사료를 살펴보면 <표 6>의 순번 1, 4, 6, 12, 13, 14번으로, 우선 관찬사료인 『일성록』과 김희락과 이희발의 시문집에서는 각각 쌀 300石,

쌀 600斛의 구체적인 곡식의 수량을 명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체제공의 『번압집』과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에는 千畝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조수삼의 『추재집』에는 수천석의 곡식과 수천폐미 돈이라 기재하는 등 추상적인 진흙 수량을 기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렇듯 사료마다 서로 다른 수치와 수량을 기재해 놓고 있음에 따라 김만덕의 명확한 진흙 수량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즉, 김만덕의 진흙규모에 대해 체제공과 김희락·이희발은 제주 기민 천여 명을 구제할 만큼의 혹은 탐라 백성들이 10일을 연명할 수 있는 만큼의 곡식을 출연했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그 당시 연이은 심각한 기근 상황에서 제주도에 쌀을 직접 사들여와 ‘제주 기민 천여 명’ 혹은 ‘열흘의 기간을 재활시켰다’라는 것은 김만덕이 기부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미루어 짐작 가능케 한다. 비슷한 시기인 1795년(정조 19), 제주목사 이우현은 “전 현감 고한록은 곡식을 무역해 진흙해 보탠 것이 300석에 이르고, 장교 홍삼필과 유학 양성범은 자원해서 납부한 곡물이 각각 100석이나 된다”고 보고하자, 이에 대해 정조는 고한록이 매년 사재를 내놓곤 함에 매우 가상하다하여 加資하고 있고, 홍삼필과 양성범이 100석을 자원해서 납부한 것은 육지에서의 1,000包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를 병조로 하여금 巡將으로 승진시켜 임명토록 하교하고 있다.<sup>65)</sup> 이때 홍삼필과 양성범이 100석을 자원 납부한 것은 ‘육지의 1,000包와 맞먹는다(可敵陸地之千包)’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김만덕의 300석 기부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김만덕이 내놓은 재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명확치 않지만, 米穀 생산이 전무했던 당시의 제주도에 장기간에 걸친 대기근의 상황에서 내놓은 재산은 실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던 김만덕의 의기로운 선행으로 정조는 그녀의 소원인 서울 상경 및 금강산 유람을 특별히 승낙하였다. 이에 제주도에 내려진 출륙금지령이 채 풀리지 않은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65) 『正祖實錄』 권42, 정조 19년(1795) 5월 11일 신유조.

김만덕은 여성이자 천민(기녀)의 신분으로 상경하여 임금(정조)을 알현하게 됨은 물론, 내의원 의녀반수라는 벼슬 또한 하사받았으며, 모든 비용과 양식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금강산을 유람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아울러 정조는 규장각 문신들로 하여금 ‘만덕’을 주제로 글을 지어 바치도록 함에 따라<sup>66)</sup> 이 같은 김만덕의 행적은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 관찬사료뿐만 아니라, 당대 여러 실학자들의 문집에 시와 문장을 통해 기록되어졌다. 그렇다면 정조는 동일시기(1795년, 정조 19) 개인 사재를 출연했던 제주도 관리 고한록, 홍삼필, 양성범과 다르게 유독 김만덕에 대해서만 각 臣들에게 교지를 내려 그녀의 행적을 제술하도록 하였을까?

요컨대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전적인 공급에 의해 이뤄졌던 진흥시스템 하에서 양반이 아닌, 천민(기녀) 출신 김만덕이 타의가 아닌, 자발적인 출연으로 수많은 제주민들을 구명한 이례적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정조는 자신의 개혁 의지를 밝히고자 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사농공상·남존여비가 지배하던 당시 폐쇄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조는 김만덕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권위가 조선의 온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이하고자 했으며, 부국의 원천으로서 상품유통경제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킴은 물론, 기득권층의 부당한 蓄財를 역설적으로 비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67)</sup> 다시 말해 변방의 섬 제주에서 천민(기녀)의 신분이었던 김만덕은 18~19세기 활발히 전개되던 상품유통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며, 이렇게 모은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놓아 굶주림에 시달리던 제주 기민을 구휼하였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개인적 소망을 이룬 동시에 정조는 이를 자신의 개혁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모범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66) 김희락의 『故寔』 「奉教製進萬德傳」(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림)이라는 제목과 이희발의 『雲谷先生文集』 권8 「萬德傳」을 보면 초두에 “이 아래로 규장각에서 講製할 때 教旨를 받들어 지어 올린 것이다”라고 기재해 놓고 있다. 또한 심노승의 『孝田散稿』 권7 「桂織傳」에서는 “조정의 학사들로 하여금 그의 傳까지 짓도록 명하여 규장각의 여러 학사들을 시험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67) 문순덕·박찬식,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제주발전연구원, 2010, 26-27쪽.

#### 4. 맺음말

김만덕이 살았던 18~19세기는 조선사회의 다방면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였다. 중세 봉건사회 이데올로기로써 기능하던 성리학의 보수화·교조화·폐쇄화가 초래한 여러 가지 폐단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조선 전기의 통치 질서는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이 같은 사회적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儒學의 새로운 조류로 대동한 實學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선후기 실사구시를 표방하는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어느 부분보다도 경제적인 면에서 확연한 발전양상을 띠었다. 즉, 이양법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이 급속도로 향상되었으며, 대동법 실시와 화폐 사용으로 상품유통경제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조선사회의 변화무쌍한 경제적 변화는 제주사회가 처한 열악한 자연지리적 조건에 부딪혀 그대로 전달·흡수되지 못하였다. 즉, 제주도의 척박한 토질에 기인한 낮은 토지 생산성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업의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때문에 제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아가 고기잡이 및 미역채취를 하거나, 특산물·수공업 제품 등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쌀·베·소금 등과 교환하는 등의 私貿易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항해술·조선술 등 항해기술을 비롯한 해상교통의 발달이 점차 가속화됨과 동시에 상품화폐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제주-육지간의 私貿易은 전라도 남해안 일대의 포구뿐만이 아니라, 경상도·충청도·서울 경기도까지 아우르는 광역의 상품유통로가 형성되기에 이름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제주민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대용의 목적으로써 곡물 구매하는 것 외에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특산물과 맞바꾼 곡물을 또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 다른 물품으로 바꿔 교역하는 등의 새로운 상업 활동의 모습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접어들어서도 제주도는 각종 기상재해와 기근으로 말미암아 식량부족 및 민심동요 등 갖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조선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활기를 띠던 상품화폐경제의 유통경제

망을 활용하여 제주의 상품가치 큰 物産과 육지의 곡식 교역을 주관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18세기 나리포창의 운영은 조선정부가 주도했던 제주와 육지 간의 물자유통을 대표하는 것으로, 당시 상품화폐경제 발달과 함께 전개된 公貿易의 한 예라 할 수 있겠으나, 정작 운영과정에서는 중간 관리자의 부정과 현지 토착세력의 이권화 등의 폐단을 낳으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물자유통망의 확대·해상교통의 진보를 이뤘던 18~19세기, 제주 産物이 지닌 상품 가치에 주목해 이를 생산 조건이 다른 지역과 상품교역을 실시함으로써 제주 진흥곡의 원활한 확보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보된 진흥정책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겠다.

한편 조선후기 제주도에 들이닥친 3번의 연속적 대기근으로 제주사회는 더욱더 피폐해져 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김만덕[1739년(영조 15)~1812년(순조 12, 74세)]은 변방의 섬인 제주도에서 태어나 기녀(천민)이라는 신분적 굴레와 여성이라는 차별을 극복하고, 18세기 당시 명망 높은 기녀로서 제주도내 관리 및 지방의 유력 토호세력, 부호들을 비롯해 제주도를 왕래하는 육지 상인들을 상대로 한 妓房 혹은 舖를 기반으로 매점매석 등의 운영방식을 통해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최악의 흉년을 맞은 1795년(정조 19), 자신의 모은 재산을 기부하여 수많은 제주민들을 救命하였다. 이러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김만덕은 그녀를 둘러싼 각종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한양으로의 상경, 왕과 왕비의 알현, 의녀반수의 직책 획득, 금강산 유람 등의 전례 없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같은 김만덕의 의로운 선행은 현재까지도 못사람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으며, 단지 한 제주여성에 대한 전기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 그녀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 제시의 표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 김만덕이란 인물을 선양화하는 과정에서 당대 역사적 문헌 사료에서와 다르게 그녀의 생애 전반이 상이하게 기록되어지고, 이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고는 김만덕의 생애를 18~19세기 제주사회의 시대적 상황이란 거시적이고 유기적인 연결고리 속에서 재고찰하였다. 아울러 그녀에

관한 후대 전록 기사들의 비교·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김만덕의 생애에 대한 오류 및 상이점 등을 찾아 재평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통설을 부정한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김만덕에 대한 표면화된 역사적 담론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요컨대 이상의 연구 결과가 김만덕이란 인물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선양화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제주도, 상품화폐경제, 김만덕, 면천, 기녀, 기근, 진흥

## ■ 참고문헌

### 1. 사료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羅里浦事實』, 『漂人領來謄錄』, 『萬機要覽』, 『濟州牧關報牒』, 『濟州啓錄』, 『南槎錄』, 『濟州風土記』, 『南槎日錄』, 『知瀛錄』, 『南宦博物』, 『經世遺表』, 『與猶堂全書』, 『耽羅誌草本』, 『寓庵文集』

### 2. 저서

고창석·김상욱 譯, 『濟州啓錄』, 제주발전연구원, 2012.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총서Ⅱ』, 도서출판 각, 2008.  
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이상기후와 문화』, 푸른길, 2018.  
서귀포시 편, 『濟州啓錄』(영인본), 서귀포시, 1995.  
서울대학교규장각, 『漂人領來謄錄』 1~7, 보경문화사, 1993.  
이원조 著·고창석 譯, 『耽羅誌草本』 上·下, 제주교육박물관, 2007.  
이익태 著·김익수 譯, 『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이형상 著, 이상규·오창명 譯,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 3. 연구논문

강경호, 『제주 교방(敎坊) 관련 예술의 전통과 문화원형 탐색을 위한 이론적 고찰』, 『국제어문』 제79집, 2018.  
강은정, 『조선후기 羅里鋪倉의 설치와 운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고동환, 『조선후기 船商活動과 浦口間 商品流通의 양상 - 漂流關係記錄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제14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3.  
\_\_\_\_\_, 『조선후기 船商의 航行條件 - 영·호남 해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3집, 한국사연구회, 2003.  
권인혁,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 實狀과 그 性格』, 『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직역변동』,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_\_\_\_\_, 『조선시대 濟州島 漂流·漂到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김현주,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진휼비(賑恤碑)와 진휼실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나가모리 미쯔노부(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제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룩탄다 유태카(六反田豊), 『十九世紀濟州島의 出海難と漂流 - 『濟州啓錄』의 分析』, 『年報朝鮮學』 7, 九州大学朝鮮學研究会, 1999.  
문순덕·박찬식,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제주발전연구원, 2010.  
양정필, 『18세기 후반 金萬德의 경제활동 再考察』, 『사학연구』 제125호, 한국사학회, 2017.  
이욱, 『18~19세기 중반 濟州地域 商品貨幣經濟 발전과 성격』, 『국학연구』 제12집, 한국국학진흥원, 2008.

- 정형지, 『조선후기 交濟倉의 설치와 운영 - 18세기 羅里浦倉 사례를 중심으로 -』, 『이대사원』 제28집, 이화여자대학교사학회, 1995.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 객주터 기본조사 및 유적터 고증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 \_\_\_\_\_, 『김만덕 기념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1.
- \_\_\_\_\_, 『김만덕 객주터 재현사업 학술용역보고서』, 도서출판 각, 2012.
- 조지형, 『17세기, 소빙기, 그리고 역사추동력으로서의 인간 - 거대사적 재검토 -』, 『이화사학연구』 제43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11.



# Reconsideration on Jeju Society and Kim Mandeok's Life in the 18 · 19th Century

Kim, Na-Young

(Ph.D., Department of History Studies, Jeju National University,  
Curator, World Heritage Offi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hen Kim Mandeok lived was a time when various changes took place in various aspects of Joseon society. The order of the Joseon Dynasty began to collapse due to surfacing of various evils stemming from the conservatism, dogmatism, and closing characteristic of Neo-Confucianism that functioned as the main ideology in the medieval feudal society. Hence, in the process of finding solutions to these social contradictions, the study of Silhak, which emerged as a new tide of Confucianism, has become the center of change i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Silhak philosopher who stood for empirical tradition, the development aspect in this time was more economical than in any other time. In other words, agricultural production power was rapidly improved due to The method of transplanting rice seedlings, and the circulation of goods was activated by the use of money and the implementation of Daedongbeop.

However, the economic changes of Joseon society have not been transmitted and absorbed due to the poor natural geographical condition of Jeju society. In other words, low land productivity due to the poor soil condition of Jeju Island caused agriculture-based work difficulties. Therefore,

the residents had to take the risk of life, go to the sea to collect fish and seaweed, carry out private trade such as exchanging rice, hemp, salt, etc. necessary for them with products. As the development of maritime transportation including shipbuilding and sailing technology and the activation of the commodity money economy is accelerating, the Jeju-Korea private trade and distribution of goods are spreading not only in the south coast of Jeolla Province, but also in the Gyeongsang Province and Chungcheong Province. As the road is formed, the name can be seen. In addition to the purchase of grain for the purpose of food substitution for the purpose of livelihood maintenance, the residents of the Jeju were also involved in new commercial activities, such as shifting grains to other regions and trading them for other goods in order to generate more profits.

Ev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Jeju was frequently exposed to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food shortages and public unrest due to various weather disasters and famin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Joseon government tried to control grain trade of large commodity value goods between land and Jeju using the circulation economic network of commodity monetary economy that was active at that time. In this way, the operation of Naripo Port in the 18th century represents the distribution of goods between Jeju and the land, which was led by the Joseon government, which is an representative example of public trade developed with the development of commodity money economy at that time. However, it has not been able to operate effectively while generating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corruption of middle managers and extortion of rights by of local indigenous forces. In the aspect of securing the Jeju rice of relieving, we can get a glimpse of the advanced progress of the relieving policy, as they traded goods with other regions by paying attention to the value of Jeju products i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hen the development of the monetary economy, the expansion of the distribution

network of goods, and the advancement of maritime transportation are accelerating.

On the other hand, Jeju Island became more and more deprived by three continuous hot springs that came to Jeju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is situation, Kim Mandeok was born in Jeju Island and overcame discrimination as a gisaeng(the lowest class of people), a female and a woman. As a highly respected woman in the 18th century, We have accumulated a lot of property through the operation method such as cornering, based on the market or gisaeng service for the local merchants in and around Jeju including local power and rich people. In 1795, when the worst famine was reached (Jeongjo 19), she bought many grain crops with her own wealth and saved millions of residents. Kim Mandeok overcomes the various obstacles surrounding her and got unprecedented opportunities such as move to Hanyang, admiration of kings and queens, acquiring the position of Euinyeobansu, and trip to Mount Kumgang.

Her good deed is widely known to all people until now, and it becomes a sample of the presenting direction of life that we should go through her life beyond just an biographical approach to a Jeju woman. However, in the the 20th century, in the course of making the character of Kim Mandeok, the whole of her life is recorded differently from the historical documentary of the time, and it is a fact that it is viewed as common.

As mentioned above, in this paper, I reconsidered the life of Kim Mandeok in the macro-organic link of the situation of Jeju society in the 18th-19th century. In addition,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ater articles about her, I am suggesting the necessity of re-evaluating mistakes and differences in studying her life. This work is controversial because it denies the existing common view, but it is meaningful that the surfaced historical discourse on Kim Mandeok was reviewed from an academic viewpoint. In short,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help to reestablish and Kim Mandeok's identity and to set the direction of enhancing correctly.

[Key words]

Jeju Island, Commodity Money Economy, Kim Mandeok, Exemption from the slavery, Gisaeng, Famine, Relief

K C I

논문투고일: 2019년 5월 10일 / 논문수정일: 2019년 6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24일